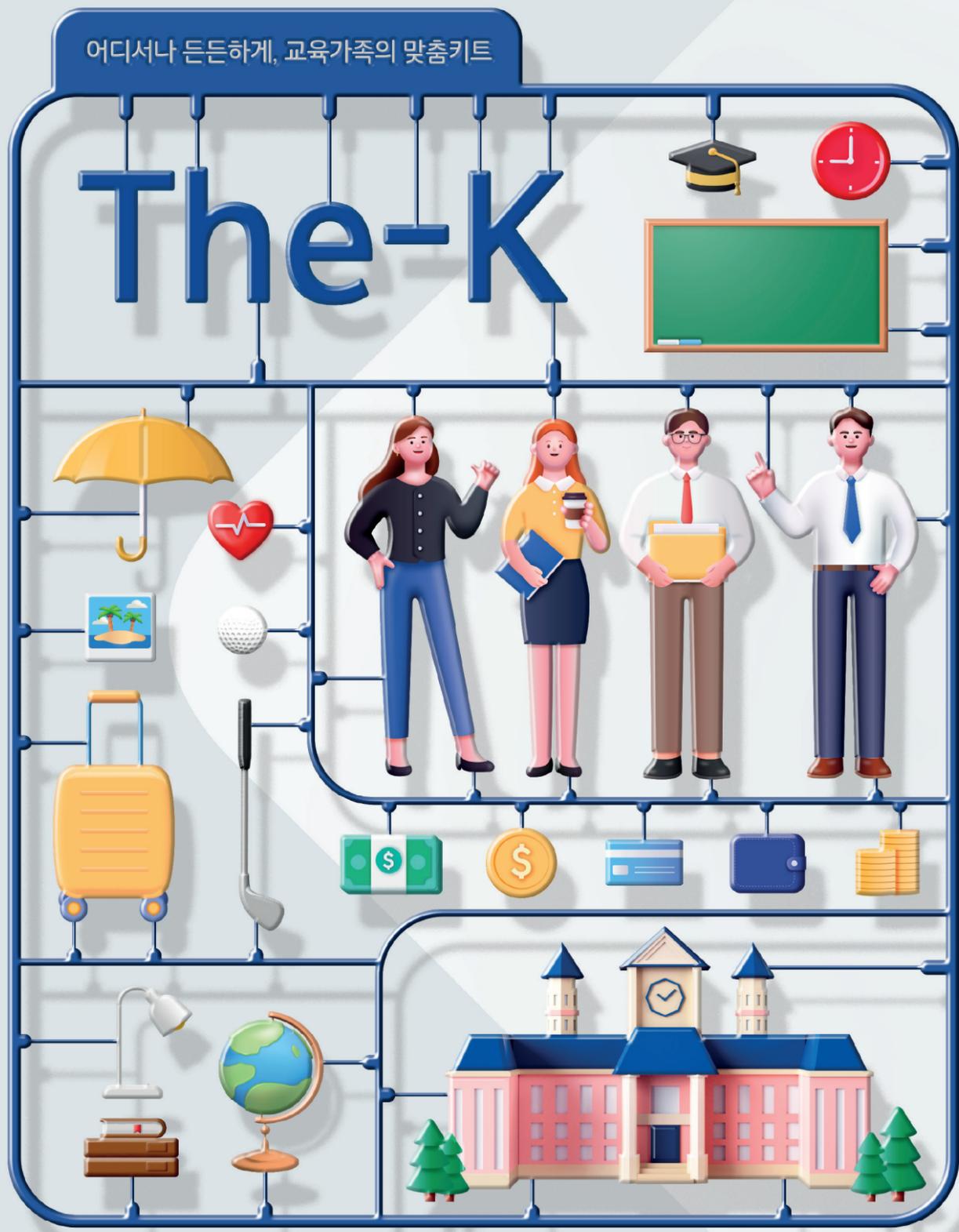


어디서나 든든하게, 교육가족의 맞춤키트

The-K



오늘의 행복이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진 행복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가족이 꿈꾸는 완벽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The-K한국교직원공제회**가 노력하겠습니다

The-K

MONTHLY MAGAZINE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종이접기로 사랑을 전합니다
교육자로서 행복한 코닥지들의 영원한 선생님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
김영만 원장



「오늘의 학교」

어른이 되어서도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
동심으로 함께 부르는 노래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김애경 교육장



「꿈 너머 꿈」

그림책의 숲에서
창작하고 치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삶'

종그연 이현아 · 조시은 교사

2023 05
vol.69

- + **생각 나누기** 역사 속 숨은 영웅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던 소파 방정환과 제자들의 모임 '색동회'
- + **배움 더하기** 미래 잡(job)자 놀이하듯 공부하자! 에듀 툴킷 디자이너
- X **행복 곱하기** 방방곡곡 숨은 명소 섬진강 변 물들이는 꽃의 여왕 장미와 만나다 도깨비 전설 흐르는 지리산 자락의 고장 전남 곡성군
- E **언제나 더케이** The-K Focus 가정의 달 5월, 알아두고 챙겨보면 좋은 공제회 복지서비스 모음집

04 **여는 글**
마음을 치유하는 '동심'

☞ 생각 나누기

삶의 깨우침을 주는 멘토,
추억과 공감을 나누는 회원들의 이야기

- 06 **스승의 날 감사 메시지**
5월이면 더욱 보고 싶고 생각나는 그 이름 선생님!
존경과 감사를 담은 마음을 전합니다
- 10 **The-K 예술가**
햇살처럼 따사로운 스승의 은혜 속에
초롱한 꿈을 키우며 저희들은 자랍니다
- 12 **에세이**
아이들의 사랑 그득 담긴 따스했던 북엇국의 추억
- 14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종이접기로 사랑을 전합니다
교육자라서 행복한 코딱지들의 영원한 선생님
_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 김영만 원장
- 18 **역사 속 숨은 영웅**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던
소파 방정환과 제자들의 모임 '색동회'
- 22 **우리 어렸을 적에**
5월은 푸르구나! 즐거운 축제의 현장

- **발행일** 2023년 5월 1일
-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홈페이지** www.ktcu.or.kr
- **발행인** 김상곤
- **기획** 홍보소통부 미디어소통팀
장영호, 최용호, 김경희, 오수민, 박연희
- **편집** 수석기자 이은정 / 객원기자 이성미 / 교열 박혜경
- **디자인** 아트 디렉터 이윤정 / 디자이너 이진희
- **사진** 포토그래퍼 이용기
-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제작**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 배움 더하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배워보는
교육 이야기 & 세대별 맞춤 콘텐츠

- 24 **오늘의 학교**
어른이 되어서도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
동심으로 함께 부르는 노래
_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김애경 교육장
- 28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교육수단으로 급부상하는 AI
달라지는 교사의 역할과 교육현장
- 32 **미래 잡(job)자**
놀이하듯 공부하자!
에듀 툴킷(Edu Toolkit) 디자이너
- 34 **꿈 너머 꿈**
그림책의 숲에서
창작하고 치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삶'
_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종그연) 이현아·조시은 교사
- 38 **고민 상담소**
아이도 부모도 어려운 건 매한가지
관계에 능동적인 우리 아이 만들기
- 40 **인생 이모작**
우리 작은도서관은
동네 사랑방이자 꿈이 자라는 동지입니다
_ 동지작은도서관 관장 이경희 회원

*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 행복 곱하기

힐링을 전하고 행복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정보

- 44 **방방곡곡 숨은 명소**
섬진강 변 물들이는 꽃의 여왕 장미와 만나다
도깨비 전설 흐르는 지리산 자락의 고장
전남 곡성군
- 50 **마음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대인관계
- 52 **The-K 예방의학**
코로나19 방역도 막지 못한 바이러스
감염병 줄었는데 장염 유행은 계속, 왜?
- 54 **똑똑! 트렌드 경제**
드디어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이는 지금,
올바른 재테크 방향을 모색하다
- 56 **건강한 집밥**
정성 한 스푼, 애정 두 스푼을 담아 만든
가정의 달에 딱 맞춘 수제 먹거리 선물
- 60 **DIY 리사이클링**
어린이의 눈높이로 환경사랑을 실천합니다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
& 어린이와 함께 만드는 동물 모양 학용품

☐ 언제나 더케이

회원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최신 정보와 주요 소식 & 이벤트

- 64 **The-K Focus**
가정의 달 5월, 실속있고 풍성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알아두고 챙겨보면 좋은 공제회 복지서비스 모음집
- 68 **The-K 매거진 심고 달려가는 커피트릭**
지나온 세월 100년 축하드리며,
다가올 미래 100년을 응원합니다!
아홉 번째 현장 이야기: 대구상원고등학교편
- 72 **The-K News**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 76 **The-K Family**
2023년 나에게 딱 맞고 꼭 필요한
보험 선택 가이드 제2편
- 77 **The-K OX퀴즈**
- 78 **회원 의견**
- 82 **「The-K 매거진」 온라인 웹진 이벤트**
- 83 **5월 즉석당첨 이벤트**



웹진



안드로이드앱



아이폰앱

The-K Magazine을 스마트폰에서 보는 법

「The-K 매거진」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여 학교나 기관 등으로 발송해 드리며,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한국교직원공제회 • 회원콜센터 1577-3400 • 보험콜센터 1577-3993



마음을 치유하는 '동심'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냅니다.

단순히 주어진 책임과 의무 때문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꿈을 이루고자 했던 순수했던 마음, 무언가에 몰두했던 창의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지친 삶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있기에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쁘게 성취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훌훌 털고 다시 달릴 수 있고 다툼을 했더라도 금세 용서하고 화해하는 어린이의 마음이 지금의 우리 마음속에 남아 행복을 만드는 원천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5월호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옛 스승님과 동료 선·후배들을 향한 고마움을 담은

회원님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들은 '일상 속의 The-K'에서 전하며

'역사 속 숨은 영웅'에서는 소파 방정환 선생과 함께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린이들에 달렸다는 생각으로 문화 보급과 인식 개선에 힘쓴 어린이 운동단체 '색동회'에 참여한 민족운동가들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의 종이접기 교육에 매진하고 모두가 함께 창작의 즐거움을 누리며 또 전파할 수 있도록 애써 온

'종이접기 할아버지' 김영만 원장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는 '좋은 사람 좋은 생각'에서 만날 수 있으며

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으며 동요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김애경 교육장의

동요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철학에 대해 '오늘의 학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 곁에서 창작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좋아서하는그림책연구회(종그연)'의 이현아·조시온 교사와

아이들과 함께한 창작활동들은 '꿈 너머 꿈' 코너에서

어린이부터 노인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인 퇴직 교사 이경희 관장의 이야기는 '인생 이모작'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DIY 리사이클링'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어린이환경센터의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함께

재활용품을 활용한 동물 모양 학용품을 만드는 법을 배워봅니다.

장미꽃 만발한 전남 곡성군으로 떠나는 여행 소개와 가족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만들어 보는 케이크와 떡 등의 요리법도 담았습니다.

모임과 행사, 여행과 문화공연을 즐기기에 제격인 5월, 공제회 직영호텔&전용 콘도, 제휴 리조트&호텔, 문화·공연, 건강·의료 혜택 등 알아두고 챙겨보면 좋은 공제회의 다채로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모아 소개합니다.

개교 100주년을 맞은 대구상원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커피트릭 행사의 생생한 현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순수한 동심으로 삶을 누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행복한 '어른이'들의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㉔

5 월 이 면 | 더 욱 | 보 고 | 싶 고 | 생 각 | 나 는
 그 | 이 름 | 선 생 님 ! | 사 랑 합 니 다 . | 고 맵 습 니 다 .

존경과 감사를 담은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 가족이 서로에게 보내는 스승의 날 감사 편지

가장 순수했던 시절, 지식을 전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며 사랑을 나누어 주셨던 분, 선생님.. 철없는 아이들의 마음에 좋은 것을 담아 주고자 늘 애쓰며 참고 지켜봐 주셨던 그 마음의 깊이를 어른이 되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The-K 매거진」은 지난달 '스승의 날 감사 인사 메시지' 이벤트를 통해 어린 시절 스승님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메세지, 스승과도 같은 동료 선·후배들을 향한 고마움, 존경하는 부모님께 전하는 마음 등 회원님들의 소중한 사연을 모았습니다. 무려 1,445명의 회원님께서 정성 가득,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글귀 하나하나에 담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동과 훈훈함, 숙연함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연을 지면의 한계로 소개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송구함마저 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된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교육 현장·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진심을 담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To.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신 나의 롤모델 김진숙 선생님

운동장 밖에 벗어둔 코트를 잃어버려 엄마에게 혼날까봐 두려워 가출해서 간 곳이 담임선생님 집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납니다. 그 래서인지 저도 아이들에게 속상해서, 힘들어서 집을 나오게 되면 꼭 저에게 연락하라고 합니다. 학기 말 전학을 가게 됐을 때 친구들보다 선생님을 볼 수 없어 참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교직에 입문해 힘내서 아이를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건 선생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발령받고 선생님을 찾고 싶어 수소문해 봤으나 지역을 옮기신 건지 찾을 수 없어 안타까웠어요. 제 교직 생활의 롤모델인 김진숙 선생님, 언제 어디서나 선생님이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수 회원 탕정중학교

To. 똑똑하고 당찬 빛나는 나의 제자이자 후배 혜지

교사가 된 내 제자 혜지에게, 2009년 너를 처음 만났던 그때의 내 나이가 된 너는 나보다 훨씬 멋지고 단단해 보여 마음이 놀란다. 사범대 진학을 말렸던 건 똑똑하고 당찬 네가 남이 아닌 네 꿈을 펼칠 수 있는 삶을 살길 바라서였어. 그런데 넌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구나. 교직이 힘들다고 징징거리던, 겨우 5년 차였던 나를 '멋진 선생님'으로 기억해 줘 너무 고맙다. 이렇게 큰 위로가 있을까. 너의 앞길에 늘 꽃길이기 를, 때론 힘들어도 늘 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꽃 같은 아이들만 만나기를 그 무엇보다 바란다. 나도 너의 멋진 선생님이로 남도록 노력할게.

정*윤 회원 울산중앙중학교

- * 본문에 게재된 내용은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 지면에 소개된 15명의 회원님에게는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5만 원권을, 그 외에 사연을 보내주신 500분의 회원님에게는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1만 원권을 드립니다.

To. 초임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의 멘토인 김정아 선배님

김정아 선배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글을 씁니다. 제가 학교에 임용되어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고민을 이야기하면 항상 긍정적인 조언과 함께 선배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하고 지내고 있다는 경험담까지 덧붙여서 제게 멘토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제 멘토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게 기본 일이 생겼을 때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진심으로 같이 슬퍼해 주시며 고민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들어서 사회에서 만나도 이렇게 진심일 수 있구나, 제가 선배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선배를 안 지 15년이 돼가는데, 앞으로 더 많은 날을 선배와 좋은 시간 만들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제가 받은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는 저도 선배에게 도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후배가 돼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네요. 이런 기회를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고마운 선배라고 생각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선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는 제가 그동안 받은 사랑의 2배, 3배 되돌려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배*현 회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To. 사랑으로 이끌어준 신혜승 부장님

안녕하세요. 신혜승 부장님. 저는 참 인복이 있다고 느끼는 게 첫 학교에 발령받아 사수처럼 앞으로 어떻게 교직 생활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는 교과, 업무 부장님들이 계셨고, 특히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학교의 배려를 받아 연구부 기획으로 일하는 3년간 부장님을 만난 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나 교사로서나 본받을 점이 정말 많다고 느꼈습니다. 업무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귀찮으실 만도 한데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제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항상 진심으로 대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 보니 표현이 좀 서툴고 먼저 연락도 못 드렸는데 항상 부장님께서 먼저 연락해 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해요. 저는 현재 좋은 아이들과 동료 선생님을 만나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부장님도 올 한 해 새 구성원들과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윤 회원 서울 신도중학교

To. 누구보다 바쁘게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에게

어느덧 입사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으로 첫 출근하던 날도 지금과 같은 봄이 한창인 5월이었습니 다. 대학교 행정에 적응해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특별히 어렵거나 특별히 쉽지 않은 연차가 되고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나만 힘들고 바쁘고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는 저보다 더 힘들고 바쁘고 대단한 일을 하는 동료들이 많다는 것들이요. 학기 중에는 강의실마다 민원이 많아 엉덩이 붙이고 앉을 시간도 없고, 방학 중에도 실습실 점검과 행정 부서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직원의 책상 밑에 들어가 먼지 구덩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는 동료들의 모습에 몽클해졌습니다. 보이지 않고, 티 나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시는 동료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정 회원 상명대학교



To. 방황하던 저에게 변치않는 믿음을 보내주신 권용직 선생님

방황하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도 나를 믿어주신 우리 담임선생님, 3수 끝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수능시험 수험표를 받으러 학교에 간 날, 그날 저녁 선생님이 우리 집 앞으로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인생에서 남들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기에 있는 중이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말이다. 그리고 내일 500점 만점 받으라고 5만 원 넣으셨다며, 휴가 복귀하면서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날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그때의 고뇌와 좌절을 선생님의 그 말씀이 위로해 주었고, 나는 마침내 수능이라는 내가 만든 감옥을 벗어나 '무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나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고, 이왕이면 우리 선생님처럼 영어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영어 교사가 되었고 올해로 10년째 고3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존경하는 권용직 선생님, 올해 퇴직하신다고 하니 무척 아쉽고 또 그립습니다. 선생님의 소탈함과 푸근함을 함께하려 5월에는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즐겨 드시는 장터 국수 한 그릇, 이번에는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김*규 회원 계림고등학교

To. 격려와 솔선수범으로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신 두 분의 선생님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보통 사람들보다 심리적으로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초창기에는 감염병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으로 못하고 움츠러들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 주고 앞서 솔선수범하며 모범이 되어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하단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올해 정년을 맞아 은퇴하신 김 선생님과 이 선생님께 감사하단 말을 하고 싶네요. 경력에서 묻어나는 노련함과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비록 은퇴로 우리 결을 떠났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2막을 항상 응원합니다.

정*준 회원 서울대학교병원

선생님 건강하세요!

**To. 아무 것도 모르던 초보 교사에게
따뜻함을 알려주신 원감님**

꽃 피는 봄이면 생각나는 원감님. 안녕하십니까? 서로 전보를 간 후에는 연락하며 안부 묻기도 여의치 않네요. 임용고시에 합격했다는 기쁨도 잠시, 신설 유치원에 발령받아 기안이 무엇인지, 공람은 또 무엇인지 모든 게 낯설기만 하던 초보 교사에게 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신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신규 교사 시절의 따뜻함을 바탕으로 지금은 어떤 역경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원감 선생님께서도 참 힘드셨을 텐데 내색 한 번 없이 온 마음을 다해 전하시던 그 따뜻함. 잊지 않고 저 또한 주변 동료 교사에게 베풀겠습니다. 교직 생활의 첫 시작을 원감님과 함께해 영광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건강하세요.

김*희 회원 경기 서촌초등학교



**To. 나의 영원한 인생 멘토이신
국민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

47년 전 국민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께 올립니다. 1975년 그 시절 선생님은 아이가 2명인 30대로 엄마 품처럼 따스하고 자상했던 이미지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깊고 깊은 산골 농사짓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겨우 이름 석 자만 그리며 학교에 입학한 저를 열과 성으로 대해 주셨지요. 요즘은 은사님 찾기 프로그램을 활용해 웬만하면 근황을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은 찾을 수 없더라고요. 아마도 퇴직하신 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거나, 고인이 되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제가 지금 교단에 서 있네요. 선생님처럼 청렴함과 차별하지 않는 공정으로 학생들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았네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늦은 인사지만 이렇게라도 선생님께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선생님은 나의 영원한 인생 멘토입니다.

나*순 회원 문경여자고등학교

**To. 피와 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세상의 모든 선생님**

제가 교사가 되기 전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대를 졸업하고 교육 현장에 뛰어들자 제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정말로 알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직업이더라고요. 세상 모든 선생님, 제가 교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현장에서 땀은 많은 선생님께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아이들을 피와 땀으로 애써서 교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낍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지만, 교사는 참으로 묘한 직업입니다.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마음을 나누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노고와 애정에 깊이 감탄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힘든 격동의 시대를 잘 버티시길,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김*람 회원 서울 정덕초등학교

**To. 회복된 일상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병원의 어벤져스 선생님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있는 지금, 그간 내원하지 못했던 환자 분들이 몰려오면서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병원 종사자 중 한 명입니다. 많아진 환자 수에 바쁘게 일하다 보니 몸이 힘들기는 하지만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어 웃으면서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들에게 함께해 줘 고맙다고 직접 말하진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글로 전하고자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함께하면 어떤 일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동료들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웃으며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벤져스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합시다.

정*연 회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To. 같은 길을 걸으며 항상 힘이 되어주는
나의 소중한 아내이자 동료교사인 순제**

항상 나의 힘이 되어주는 나의 아내이자 동료 교사인 아내 순제에게. 당신이 나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의 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상했는지 가장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이 힘이 돼. 점점 힘들어지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도 아이들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는 우리 둘의 모습을 우리가 가장 잘 알잖아. 특히 당신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면서 혼자 속도 무던히 씩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택한 길, 최선을 다해 사명감을 지니고 일하자. 한 명의 아이에게라도 가르침이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아야겠지. 앞으로 남은 우리의 많은 시간들, 서로 존중하고 존중 받으며 행복하게 살자.

정*진 회원 인천 송천고등학교



To. 저에게 교사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운 어머니

제게 교사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저보다도 항상 삶에 대한, 또한 교직에 대한 정열이 강하셨던 어머니! 학생 학습 단계에 맞추어 한 명의 아이도 낙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사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제가 교직을 택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자는 10년을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장인이 될 수 있지만 교사는 20년 30년을 해도 시작되는 1년 1년이 새내기처럼 늘 서툴고 긴장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새로운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매년이 새로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겠지요. 매년 변화하는 아이들을 따라가기가 버거워질 때마다, '년 잘하고 있다'라는 격려를 받고 싶은 순간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고 저를 채찍질하곤 합니다. 제 곁에서 영원히 저를 지지해 주실 것만 같았던 어머니가 세상에 안 계신 지금, 스승의 날이 다가올 때마다 더욱더 어머니가 그리워지네요. 손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을 볼 때마다 빈자리가 서러워집니다. 늘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하셨지만 저야말로 엄마 딸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경 회원 서울 월곡중학교

**To.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도와주시는
교무실, 행정실, 급식실 선생님들**

학교에는 선생님도 있지만 교무실과 행정실,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교무실, 행정실, 급식실 선생님들께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가르치시는 선생님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같이 근무해 주시는 모든 분, 사랑합니다.

김*화 회원 백문초등학교



햇살처럼 따사로운 스승의 은혜 속에 초롱한 꿈을 키우며 저희들은 자랍니다.



행복한 일상 | 윤주용 회원(매원초등학교)

Water Color 53 x 72.7cm, 2017

작가 노트 :

한창 어우러지는 들꽃이 바쁘게 드나드는 벌들로 인해 더 예쁜 모습을 발한다. 자신을 드러내 사랑과 예쁨을 받으려고 피어난 들꽃들이 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물, 바람, 향기, 햇빛, 땅, 꽃 그리고 어우러는 벌들의 향연이 있어 꽃과 벌들은 행복한 일상을 맞이한다.

뜨거운 합창

김
민
정

소리없는 봄비들이 새싹들을 틔우고
따스한 햇살들이 푸르름을 키워내어
오월의 싱그러운 숲을 만들어 가듯이

봄비처럼 조용한 스승의 사랑 속에
햇살처럼 따사로운 스승의 은혜 속에
초롱한 꿈을 키우며 저희들은 자랍니다.

철없는 행동 위에 따스한 손길 주시고
상처난 마음 위에 부드럽게 다독이시며
정성껏 가꾸어가는 당신 뜰은 늘 푸르고

작은 절망 앞에서도 움츠리는 제자에게
새 만남을 이루도록 용기와 지혜 심어주시는
그 손길 닿는 곳마다 사랑의 꽃 피어납니다.

푸른 들녘 바라보는 농부의 눈빛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알 품은 어미새처럼 이 땅 미래 품은 당신

드높은 오월 창공으로 존경과 사랑의 무지개를 띄우면서
드넓은 오월 벌판으로 감사의 바람을 힘껏 불어 보내면서

WRITER



김민정 시인은 34년 동안 교직에서 근무하고 2021년 한산중학교에서 정년퇴임 했다. 1985년 '시조문학' 지상백일장에서 '예송리 해변에서'로 장원을 하고 등단했다. 한국공간시인 본상, 성균문학상 우수상, 나래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제펜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씨얼문학, 나래시조, 시조학회의 회원이다. 시조집 『꽃, 그 순간』 『사랑하고 싶던 날』 『영동선의 긴 봄날』 외 8권의 시조집과 영어·아랍어 번역시조집 『축제』, 일본어 번역시조집 『사랑의 시조』 등을 발간했다. 시조 시인이자 성균관대학교 문학박사로서 현재는 시조 시를 집필하고 다양한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사)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겸 상임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 「The-K 예술가」 코너는 예술, 문학적인 역량을 갖춘 회원 여러분의 사진·그림 등으로 채워집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를 희망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아이들의 사랑 그득 담긴 따스했던 북엇국의 추억

글 신금철 작가(前 청주 직지초등학교)

신금철 작가는 청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서 42년 6개월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2000년 「한국문인」으로 등단해 내륙문화회원이자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청주문인협회 부회장, 무심수필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충북수필문학상, 청양문학상, 상사화축전수필 금상, 인산기행수필문학상, 내륙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수필집 「숨어서 피는 꽃」「호랑나비의 우화」「꽃수繡를 놓다」기행수필집 「가족 그 아름다운 화소」 등이 있다.

“할머니, 내일이 무슨 날이게요?”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며 애지중지 키운 손녀가 잔뜩 미소를 머금고 묻는다. 넌지시 알려주는 손녀의 눈빛에서 며칠 전에도 기억했던 손녀의 생일을 잊을 뻔했음에 뜨끔했다. 이런 증상은 몇 해 전부터 서서히 찾아왔다. 감명 깊어 눈물 흘리던 영화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 머리를 쥐어짜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반갑다고 끌어안는 데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민망하기도 하다. 기억의 감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노화 때문이라고 하니 성경도 쓰고, 책과 신문도 읽으며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해 조금이라도 망각의 속도를 늦추려 노력하고 있다.
50년 전, 햇병아리 교사 시절이었다. 6학년 담임을 맡고

걱정이 되어 꼬박 밤을 새운 날이 많았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있는 때여서 가르치는 일이 부담되었고, 제자들과 겨우 열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그들 앞에 서기가 겁이 났다. 150cm가 조금 넘는 나보다 키가 큰 아이가 많았고, 시골에서 밥도 짓고 빨래도 하며 농사일로 바쁜 부모님을 돕는, 제법 성숙한 갈래머리 아이도 있었지만 그 속은 순박하고 거짓 없는 착한 아이들이었다. 아무래도 그들에게 나는 담임교사이기보다는 언니 같은 존재였다. 수업 시간엔 엄격했지만 수업 시간 외엔 그들을 동생처럼 대해주었다. 가르치는 시간 외에 초등학교 마지막 해의 아름다운 추억을 안겨주기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시도했고, 아이들은 나를 언니처럼, 누나처럼 잘 따라주었다.



수업이 없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이면 내 자취방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왁자글 시끄러웠다. 책도 읽고, 노래도 부르고 함께 어울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이들을 저녁 늦게야 억지로 집으로 돌려보냈다. 가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다며 좁은 자취방에서 함께 조잘대다 잠이 드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침이면 아이들과 함께 동네 골목 청소를 하며 마을 어른들의 칭송을 받았고, 야트막한 동산의 해솔길을 함께 걸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다. 부모님들께서는 철부지 아이들이 선생님을 귀찮게 한다며 걱정하셨지만, 그해 1년은 아이들로 인해 행복했다.
심한 감기 몸살로 앓아누워 출근을 못 하던 날이었다. 옆 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수업을 마치자마자 달려온 아이들은 좁은 자취방에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해 줄을 서서 대기했다가 차례로 들어와 머리를 만져주고 물수건을 대주며 간호를 해주었다. 몇몇 아이는 집에 다녀 온다고 하더니 부엌에서 북엇국을 끓인다고 야단법석을 피웠다. 한참 후 북엇국을 쟁반에 받쳐 들고 들어온 아이들 때문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웠다. 국물엔 기름이 뽕뽕 뜨고, 무는 채 익지도 않았으며 간도 맞지 않는 북엇국을 한술 뜨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정성과 사랑을 생각하며 북엇국 한 그릇을 다 먹었다.
어린 나이에 어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선생님을 위해 어른도 힘든 북엇국을 연탄불에 끓이느라 힘들었을 아이들 덕분에 몸살을 잘 이겨냈듯, 햇병아리 교사의 어려움도 착한 아이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도 북엇국을 먹을 때면 그때 제자들이 생각난다. 교직 생활 42년 동안 힘든 일도 보람찬 일도 많았지만, 평생 잊히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다.
정년퇴임을 한 지 오래지만 아직도 가방을 멘 초등학생들이

눈에 띄면 나는 교사로 돌아간다. 학교에 이어 학원을 전전하며 공부에 지쳐 보이는 아이들, 어른보다 더 진하게 화장을 한 초등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잔하고, 신나게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그 옛날 순수하고 해맑던 제자들이 떠오른다. 세월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공부에 찌들고 너무 일찍 어른을 닮아버려 순수함을 잃어가는 아이들이 안타깝다.
요즘도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북엇국을 끓여 주겠다는 자녀들이 있다면 허락하는 부모가 있을까? 아마도 교사는 학부모와 언론의 못매를 맞을 것이다.
일부 교사의 탈선행위로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사라지고, 오직 대학에만 올인하는 학력 위주의 교육은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아 그들도 지치고 피곤하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가 사교육 열풍에 편승하지 않으면 낙오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경제적 부담으로 등이 휘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에 장애가 되어 ‘사제지정(師弟之情)’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가치를 잃은 지 오래다. 천직으로 부러워하던 교사의 직업도 이젠 차츰 선호도에서 밀리고, 교직을 떠나는 교사가 많아진다고 한다. 평생을 교단에 머물렀던 전직 교사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즐거운 학교, 존경받는 선생님, 사랑스러운 제자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리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나는 아직도 스물두 살 햇병아리 교사 시절을 잊지 못하는 데, 어느새 단발머리 제자들이 환갑을 맞아 함께 늙어가는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인정한다. 지금도 그때의 제자들을 만나면 추억 속 북엇국 이야기로 그리움을 달래며 ‘사제지정’을 나누고 있다. ㊦

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교육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에세이」「나도 칼럼니스트」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업무 현장을 비롯해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교육 가족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주제는 무엇이든 환영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교육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의 작품을 선정해 매거진에 실어드리겠습니다.

★ 원고 분량 : 원고지 12매 (A4 1매 반)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마감일 : 매월 10일

종이접기로 사랑을 전합니다 교육자라서 행복한 코딱지들의 영원한 선생님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 **김영만** 원장 (마산대학교 미디어콘텐츠과 초빙교수)

어른이다. 동시에 아이이다. 김영만 원장은 어느 한 편에 세울 수 없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그의 편이고, 팬이다. 남작한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만났지만, 김영만 원장은 늘 우리 마음속에 3D로 살아있다. 그가 만드는 종이 작품처럼 말이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평생을 사는 것, 또 한평생 종이접기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 김영만 원장은 이 모든 것이 '사랑' 덕분이라고 말한다.

글 이성미 / 사진 김수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평생 종이접기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준 김영만 원장의 종이접기 사랑과 인생 이야기를 만나고 색종이로 카네이션 꽃 만드는 방법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종이접기 선생님이신 그래픽 디자이너

어린 시절, 나를 부르는 종이접기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면 색종이와 가위부터 찾기 시작했다. TV 앞에 앉아 종이를 만지면서, 아저씨의 손끝에서 탄생한 새나 용, 도깨비와 내 손에 있는 것을 번갈아 바라보기도 했다. 서로 영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좋았다. 어떤 모습을 했건 색종이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였다.

색종이와 친구를 맺게 한 주선자는 바로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원장이었다. 1988년 KBS1 'TV 유치원 하나둘셋'을 시작으로, KBS2 '혼자서도 잘해요', EBS '딩동댕 유치원' 등을 거쳐 2000년대 초반까지 김영만 원장은 방송을 통해 다양한 종이접기 방법을 소개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후에도 방송, 강연 등을 통해 계속 종이 조형을 전파했다. 현재는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 원장, 마산대학교 미디어콘텐츠과 초빙교수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반평생 사랑하는 색종이를 실컷 만지고 있으니 요즘 말로 '덕업일치', 좋아하는 일과 직업이 일치한 셈이다. 그러나 40년 전 김영만 원장이 처음 종이접기를 접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종이접기 불모지였다.

김영만 원장은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서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했다. 퇴사 후 사업을 시작했으나 뜻대로 풀리지 않아 일본에 건너가면서, 그의 인생은 양면 색종이 뒤집듯 바뀌었다. 당시 일본 아이들은 능숙하게 종이접기를 할 줄 알았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와 교육 현장을 살펴보니 일본과는 아주 달랐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회화만을 가르쳤고, 아이들이 종이를 가지고 접는다는 것이 고작 딱지 정도였다.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 김영만 원장은 종이접기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스케치북은 이차원이고, 종이접기는 삼차원이예요. 평면에서 입체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 종이접기죠. 거기서 더 발전하면 정보통신, 과학기술 같은 고차원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어디에도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더군요. 왜 그런지 선생님들에게 여쭙보니 ‘아는 것이 없어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이 조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만 원장은 종이접기와 다른 재료를 결합해 3차원 물체를 만드는 종이 조형을 함께 연구했다. 그리고는 초등학교



미술교사로 취직해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웬 중년의 남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친다’라는 소문은 금세 퍼졌다. 아침 방송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TV 유치원 하나둘셋’ 제작진에게서 “종이접기 코너를 함께해 보자”라고 제안이 왔다. 그러나 방송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였다.

“방송 초반에는 ‘중년 아저씨가 종이접기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늘 새로운 종이 조형을 선보여야 하니 부담이 컸고요. 매번 쫓기듯 아이디어를 짜냈죠. 덕분에 목 디스크가 오고, 우울증도 찾아왔습니다. 심신이 지쳤죠.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나자 놀랍게도 경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방송 주제만 듣고도 ‘아!’ 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니까요.”

김영만 원장의 손이 닿는 곳에는 어디든 종이기가 있었다. 운전할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종이를 접었다. 수만 점의 새로운 작품이 탄생했다. 그 사이 코딱지들도 무럭무럭 성장해 갔다.

우리 코딱지들이 어른이 되었군요! 잘했어요.

아이들에게 종이 조형을 가르치는 일을 천직으로 여겨온 김영만 원장은 2015년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MBC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하면서부터다. 처음에는 작가의 간곡한 부탁에도 “청년들이 종이접기 하는 것을 보겠나?” 하며 거절했다. 거듭된 청에 “딱 한 번만”이라며 승낙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종이접기 아저씨의 등장에 어른이 된 코딱지들이 몰려와 “보고 싶었다”, “선생님을 보니 눈물 난다” 하며 인사를 남겼고, 접속자가 폭주해 한때 인터넷 방송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TV 유치원 하나들셋’ 보던 코딱지들이 다 왔나 봐요. 종이 접기 하는 것과 채팅창을 번갈아 보며 접속자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데, 채팅창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언제부턴가 채팅창에 계속 ‘ㅠㅠ’만 뜨는 거예요. 화면 뒤에 있는 작가에게 ‘이거 뭐예요? 고장 난 것 같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거 우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작가도 울고요.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하기 힘들면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면, 어른 코딱지들은 “엄마 이제 환갑이세요”, “제가 엄마예요” 하고 재치



있게 답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잘했어요”, “괜찮아요”라는 말에는 눈물을 흘렸다. 잘했다. 괜찮아. 어른이 되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이다. 방송 후 김영만 원장은 어른을 위한 강연을 시작했다.

“그 시절 코딱지들이 자라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성장기에 IMF가 터졌고, 취업난도 겪었죠. 어른이 된 아이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 방송 후로 청장년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많이 다녔어요. 제 인생 이야기도 해주고요. 강연 끝나고 사진을 찍자고 하면 다 찍어줘요. 한 시간 강연하고 두 시간 사진 찍고 올 때도 있고요. 그래도 좋아요.” 강연이 있으면 김영만 원장은 전날부터 마음을 다잡는다.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긍정적 에너지를 끌어올린다. 사람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해 주기 위해서다.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는 날이면 더욱 그렇다. 과거 종이 접기 방송을 할 때나 지금이나 그는 이렇게 믿는다. “내 기분이 지금 좋은지 나쁜지 아이들은 다 알아”라고.

교육자라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코딱지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지만, 광고 출연 제의는 거절한다. 자신은 방송인이 아닌 교육자이기 때문이다. 대신 종이접기에 대한 사랑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해외로 전파한다. 팬데믹 이전까지 김영만 원장은 종이문화재

단 평생교육원 사람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등 세계 각지를 오가며 유아교육과 학생이나 일반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종이접기 문화를 전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아직 이전처럼 활동하기는 어렵지만, 김영만 원장은 힘이 닿는 한 많은 학생을 만날 것이다. 그 이유 역시 자신이 ‘종이 조형 예술가’보다는 ‘교육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만 개의 종이접기 방법을 개발하니 사람들이 ‘특허를 내라’, ‘저작권 등록해라’ 하고 권해요. 하지만 그동안 어떤 것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교육’이니까요. 지금껏 연구해 온 것도 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고요. 저는 여전히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아요.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이 제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내어드릴 수 있어요. 단 하나 바라는 것은 종이 조형이 우리 아이들 인지 발달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뿐입니다.”

종이접기는 소근육 발달을 돕고, 공간감과 논리적 사고, 창의력을 확장시키는 데에도 최고인 놀이이자 공부다. 정해진 방법을 따라 하면 따라 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접으면 또

그대로 아이는 성장한다. “사실 교육으로 치면 종이접기는 가장 변방의 교육이예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과목을 모두 적고 나면, 맨 마지막에 종이접기가 나오겠죠. 그 변방의 교육을 앞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생각한 것이 제가 종이 접기를 한 이유였고, 또 결과예요. 이제 그 역할을 선생님들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10명의 어린이와 함께 공룡 접기를 하면, 5명은 가르쳐준 대로 따라 하고, 다른 5명은 제각각으로 만든다. 하지만 만들어놓으면 다 공룡이다. 교사가 할 일은 평가가 아니라 공감과 소통이다.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똑같이 사랑해 줘야 한다. 그러면 종이를 통한 교육은 성공이다. 건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어린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종이접기의 성공 말이다.

사랑은 사람을 평생 아이처럼 순수하게 만들기도 하고, 평생 성장하게도 한다. 김영만 원장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35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이이며, 부모이고, 스승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 영원히 찬란한 5월이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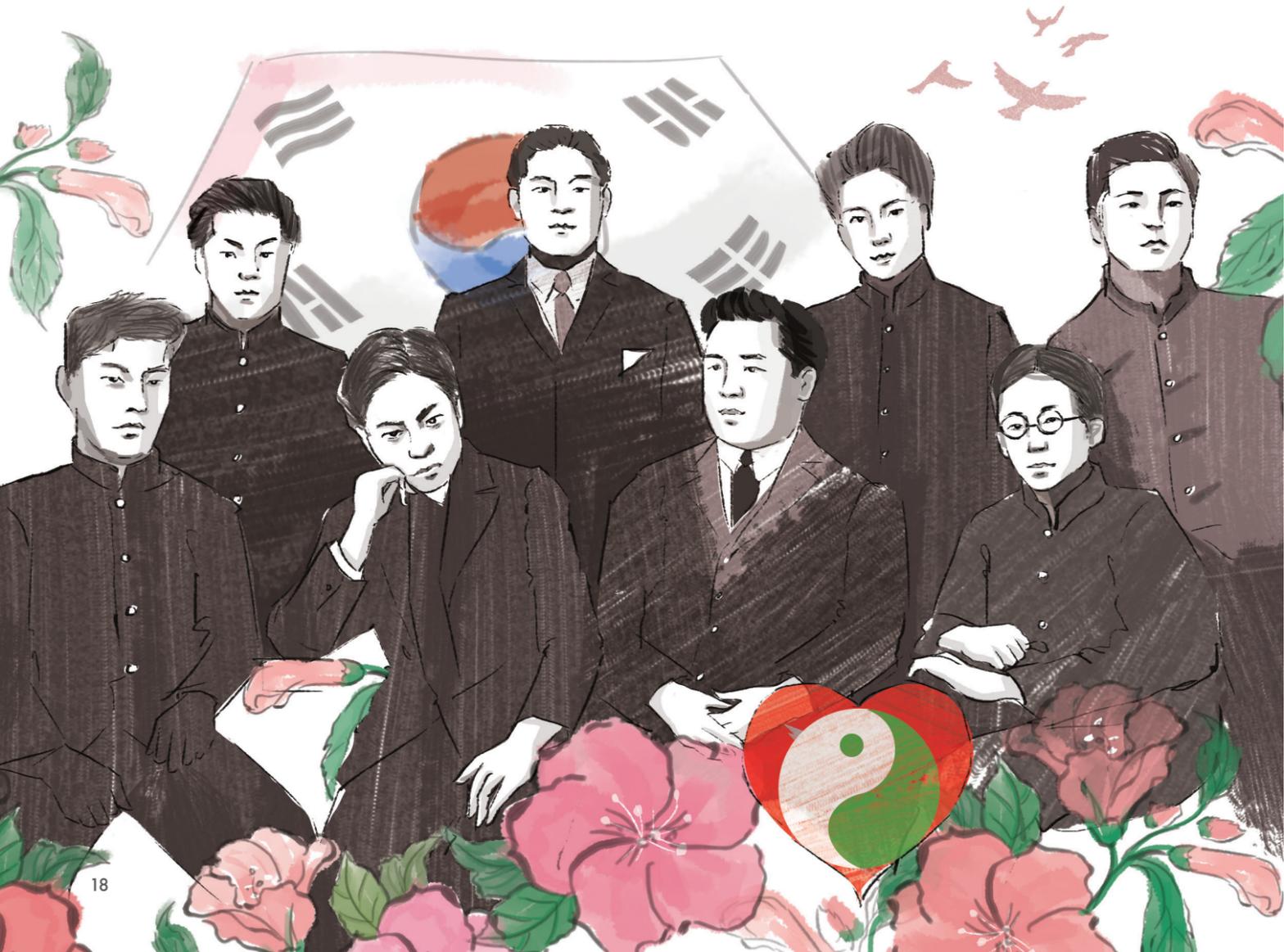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던 소파 방정환과 제자들의 모임 '색동회'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민족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달렸다'는 신념 아래 어린이 운동에 앞장섰던 모임 '색동회'는 소파 방정환 선생과 뜻을 같이한 손진태, 강영호 등이 의기투합해 아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자 결성됐다. 아동문학가 마해송, 윤석중, 조재호, 최진순, 정인섭 등도 색동회에 가입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시작됐다. 아동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고 가극 공연, 동화회, 동요회를 여는 등 어린이 문화 보급에 힘썼다. 해방 후에는 방정환 선생 동상 건립, 전국어머니동화구연대회 개최 등 어린이 문화 운동을 벌여왔다. 1995년에는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덴마크의 세계적인 완구업체 레고 그룹이 제정한 '어린이 문화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레고상을 받았다. 어린이를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에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아시아에서는 색동회가 처음으로 수상했다. 나라를 잃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어린이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한 색동회의 주요 인물들과 이들의 활동을 만나본다.

글 유정호 인천소방고등학교 역사교사

유정호 교사는 인천소방고등학교에서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역사가 아닌,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역사를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방구석 역사 여행」, 「1일 1페이지 조선사 365」, 「조선과답실록」,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동네 독립운동가 이야기」 등 역사 관련 책을 여러 권 출간했다. (u842@daum.net)



나라 잃은 슬픔 속, 어린이를 위한 '색동회'의 탄생

일제강점기 대다수 어린이는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기 어려웠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긍심과 자존심이 짓밟힌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폭 속이고 다녔다.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한국 어린이를 대놓고 무시했다. 무엇보다도 일제의 수탈로 경제적 궁핍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가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아이들은 학교 갈 시간에 집안일을 돕거나 산업 현장에서 일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사치에 가까웠다. 이런 현실을 우려하며 어린이가 아무 걱정 없이 밝고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 중심에 하루 종일 어린이를 행복하게 만들 생각만 하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있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방정환 선생은 자신과 뜻을 함께할 친구를 찾아다녔고, 어렵지 않게 함께할 동지를 만날 수 있었다. 일본에서 공부 중이던 유학생들은 방정환 선생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서로 앞다투어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의 하숙집에 손진태, 강영호, 고한승, 정순철, 조준기, 진장섭, 정병기 등 유학생 8명이 모였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어린이 운동 단체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나라를 되찾는 일이라 믿었고 더불어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 고대했다. 이를 위해 자신들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되고자 마음먹었다. 모임에 합류한 도쿄 음악학교 학생 윤극영이 '색동회'라는 명칭을 제안했다. 첫 어린이날은 색동회 발회식이 열린 1923년 5월 1일이었다.(어린이날은 1927년부터 5월 첫 일요일로 바뀌었다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부터 5월 5일로 변경됐다.) 아동문학가 마해송, 윤석중, 조재호, 최진순, 정인섭 등도 색동회에 가입했다.

어린이 운동에 헌신한 소파 방정환, 색동회 주축이 되다

방정환 선생은 서울 종로에서 어물전과 미곡상을 경영하던 할아버지 아래에서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무너지자 왕실 제사에 물품을 납품하던 그의 집안은 가세가 기울었다. 학교에 도시락조차 가져가지 못했지만, 그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했다. 가난한 형편에 '소년 입지회' 총대장이 된 그는 토론과 동화구연을 통해 10명에

불과하던 회원을 160명으로 늘릴 정도로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토지조사국에서 서류를 필사하는 사자생으로 취직했다. 어찌 보면 너무도 평범하게 살아갔을지 모를 방정환 선생의 삶은 민족지도자로 많은 이의 존경을 받는 손병희* 선생과의 만남으로 180도 바뀌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19세의 어린 방정환이 품은 열정과 잠재력 그리고 훌륭한 인성을 알아본 손병희는 그를 자신의 셋째 사위로 삼았다. 이후 방정환은 손병희의 지원을 받아 포기했던 학업을 다시 이어 나가며 계속해서 꿈을 키웠다. 학업에 전념하던 방정환 선생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깨닫는다. 이후 방정환 선생은 천도교에서 발간한 종합지 「개벽」에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본격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힌 상황 이어서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웠다. 방정환 선생은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고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유학의 주목적이 공부가 아니었던 그는 주기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강연을 펼쳤고, '천도교소년회'를 조직해 어린이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어린이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세계 명작 동화 열 편을 번역한 「사랑의 선물」을 출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일은 1923년 5월 1일 색동회를 설립한 것이다.

* 「The-K 매거진」, 2021년 3월호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 기사 참조



방정환 선생이 도쿄 유학 시절 창립한 어린이 문화연구단체 '색동회' 조직 붉은 원이 소파 방정환 선생 [출처: 한국 방정환 재단]

한국의 일을 불어넣은 역사학자이자 민속학자 손진태 선생



손진태 선생 [출처: 전통문화포털]

부산에서 태어난 손진태 선생은 5세 때 어머니를 잃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이후 서울로 상경한 그는 중등학교에서 수학하던 중 3·1 운동으로 4개월간 옥살이를 하면서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일본 와세다대학 사학과에 입학한 그는 인류학과 민속학에 관심을 가졌다. 이는 일제로 인해 우리 역사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이 선택으로 그는 훗날 우리 역사학계의 거두가 된다.

20대의 일본 유학생 손진태 선생은 어린이들이 우리 신화와 전설 그리고 동화를 접한다면 자연스럽게 민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애국심이 형성될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방정환과 함께 색동회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색동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이 생긴 손진태는 우리 민족은 어떻게 성립됐고, 우리 문화의 기초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면서 「조선민담집」(1930), 「조선민족설화의 연구」(1947) 등 11권의 책과 120여 편의 글을 남겼다. 광복 이후에도 문교부 차관 겸 편수국장이 되어 일본 역사가 아닌 우리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국사 교과서를 만드는 데 크게 공헌했다. 하지만 6·25전쟁 때 납북되었으며, 이후의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소년 운동의 발상지 '진주의 방정환' 강영호 선생

강영호 선생은 진주 봉래초등학교를 설립한, 정3품 벼슬을 지낸 강재순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형 강상호도 진주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29명 중 한 사람일 정도로 그의 집안은 나라를 위한 일에 늘 앞장섰다. 그는 진주공립보통학교와 휘문고를 졸업하고 1920년 8월 전국 최초로 발족된 '진주소년회'를 이끈 주역으로 항일전단지를 배포하려다 발각되어 도피하는 등 애국심이 투철했다. 그런 그였기에 색동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궂은일을 즐겁게 받아들였다.

일본에서 귀국한 뒤에도 고향 진주에서 신간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항일 강연을 다니고, 반제단 지방단부를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을 끊이지 않고 펼쳤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50년 6·25전쟁 중 군경에게 처형되어 현재까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강영호 선생과 색동회 회칙 [출처: 오마이뉴스]



강상호 선생 [출처: 경남일보]

민족의 애환을 달래준 '반달 할아버지' 윤극영 선생

푸른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계수나무 한그루 토끼 한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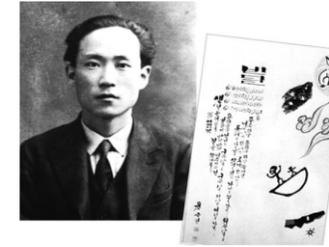
뚝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어린 시절 친구와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며 부르던 동요 '반달'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로 윤극영 선생이 만든 곡이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애환을 달래준 '반달'은 중국에 있는 조선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모든 이들이 널리 애창하는 동요이자, 유행가가 되었다. '반달 할아버지' 윤극영 선생은 경성고등보통학교(현재 경기중고등학교)를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학했으며 이곳에서 '상록수'를 쓴 외사촌 심훈, 일본 천왕을 죽이려 했던 박열을 만난다. 이후 심훈을 따라 3·1 만세운동을 벌인 일로 1년간 수감되었다. 출소 후 상하이로 망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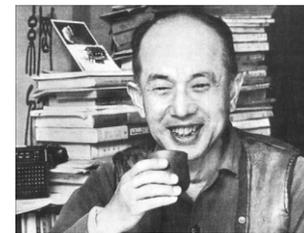
상하이에서 돌아온 윤극영 선생은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교육과정의 적성에 맞지 않아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 도쿄음악학교와 동양음악학교에 입학해 성악을 배웠다. 이때 자신을 찾아온 방정환을 만난 윤극영 선생은 어린이를 위해 평생 살아가겠다고 결의하며, 색동회라는 이름을 직접 지었다. 실제로 그는 6·25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까지 까지 설날은 어저께고요~"라는 가사의 '설날' 등 수많은

동요를 작곡하며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방정환 사후 중단되었던 색동회를 다시 조직하고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해 운영했다. 그리고는 친구이자 존경하던 방정환을 기리기 위한 동상 건립에 나섰다. 그는 죽는 날까지 후배들이 색동회의 꿈을 이어가주기를 희망했다.



윤극영 선생 [출처: KTV 국민방송]

어린이헌장을 만든 마해송 선생



마해송 선생 [출처: 연합뉴스]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개성에서 태어난 마해송 선생은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를 거쳐 보성고등보통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학교에서 존경받던 한국인 교사가 부당하게 해고되는 모습에

분을 참지 못하고 항의하다 퇴학당하고 말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일본 니혼대학 예술과에 입학했다.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마해송 선생은 극단 '동우회'를 조직해 방학 때마다 국내에서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공연을 했다. 마해송 선생의 활동 중 무엇보다 가장 뜻깊은 것은 방정환과 색동회를 조직한 일이다. 색동회 회원인 그는 「어린이」 잡지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화 '바위나리와 아기별'을 발표했다. 대학 졸업 후 마해송 선생은 일본 최대 종합 잡지사 '문예춘추사'에 입사하고, 발행 부수 10만 부가 넘는 잡지사를 직접 운영했다. 그는 잡지사 운영으로 바쁜 일정에도 어린이에게 희망과 민족정신을 심어주는 '토끼와 원숭이', '호랑이와 꽃감' 등 여러 작품을 계속 발표했다. 광복 이후에는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어린이헌장을 기초해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웃으며 살아가는 세상이 오기를 꿈꿨다. 1957년 2월 당시 한국동화작가협회 소속인 방기환·강소천·이종항·김요백·임인수·홍인순 등 7명과 함께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만들었고 이 헌장은 그해 5월 5일 정식으로 선포됐다.

어린이들의 행복을 키워낸 '색동회'라는 희망

위에서 언급한 선생님들 외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한 색동회는 일제강점기에 힘들어하던 우리 아이들에게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색동회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아동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1927년 5월 첫째 일요일로 변경)했으며 이 외에도 세계아동예술전람회와 동화·동요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쳤다. 그러자 일제는 색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해 탄압했다.

일제의 횡방으로 힘들어하던 방정환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1931년 숨을 거뒀다. 방정환이 사망하자 색동회 활동도 멈춰버렸다. 1934년 「어린이」가 폐간되고, 1937년 일제에 의해 어린이날 행사가 전면 금지되었다. 그 배경으로 1940년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 시기 어린이들은 강제적으로 송진을 채취해 학교에 제출하고, 아동용 황국신민서사를 억지로 외우며 일본의 식민지인으로 살아가기를 강요당했다.

다행히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을 맞이하자 많은 이가 색동회를 떠올렸다. 색동회에 참여했던 사람 외에도 「어린이」를 읽고 동화와 동요를 보고 들으며 꿈을 키웠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색동회를 찾았다. 이들은 힘을 합쳐 색동회를 부활시켰다. 1946년 「어린이」를 다시 발행하고,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했다. 그리고는 어린이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한 방정환 선생을 기억하기 위해 1956년 소파상을 제정했다. 이들의 노력이 하나 둘 쌓인 결과, 대한민국 정부는 1975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무엇보다도 색동회의 가장 큰 성과는 어린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준 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색동회는 동화구연대회와 어린이자연생태학교 등을 운영하며 어린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㉞



5월5일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方定煥)등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에서 만들었다. [출처: 국립미술박물관 제공]

5월은 푸르구나! 즐거운 축제의 현장

5월은 푸르구나!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또 5월은 돌아난 새싹의 녹음이 차츰 짙어지기 때문에 마음속 희망이 부풀어 오르고 만물의 성장이 활발해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학교에서는 모범 어린이를 선발해 표창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날을 기념해 운동회(교내 체육대회)를 열어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도 했다. 시도 단위로는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서 어린이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오토바이 시범 공연 등의 특별 행사를 열기도 했다. 또 가정에서는 선물을 준비하거나 놀이공원을 방문하여 평소에 타보기 어려운 놀이기구를 태워주면서 자녀들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날에는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한마음이 되어 장차 이 나라를 끌어나갈 미래의 주인공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자녀들이 정성 들여 만든 카네이션을 부모님, 조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리고, 편지 쓰기 등으로 평소 부모님의 고마움에 보답하고 경료호친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가족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5월 15일 스승의날이 되면 어버이날과 마찬가지로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옛 스승님께 편지를 쓰거나 찾아뵙는 등 스승의 은혜를 기리기도 했다. (K)

글 / 사진 김완기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 작가
(前 성북교육청 교육장)



스승의 날 기념식 (1971)

스승의 날이 되면 전교생 앞에서 스승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전교어린이회 주관으로 기념식을 진행해 선생님 은혜에 보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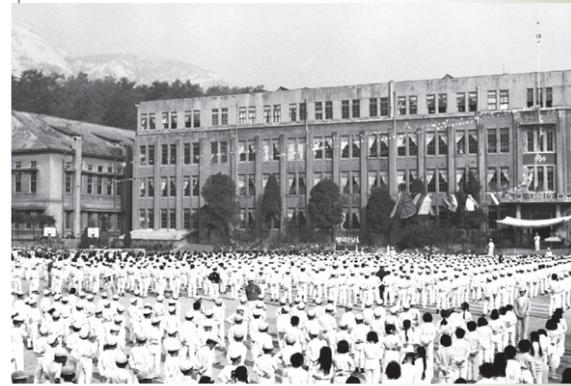
단체 곤봉체조 (1971)

운동회 때 개인경기와 단체경기가 열리는데, 그중 단체경기인 곤봉체조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운동회 (1971)

어린이날을 맞아 운동회를 개최해 즐겁게 뛰고 응원하며 힘차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청백 계주 (1971)
운동회의 최종 승부는 청군과 백군의 청백 계주로 겨룬다. 계주 경기는 운동회의 클라이맥스로 응원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다.



88열차 (1987)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온 가족이 놀이공원을 찾았다. 놀이공원의 꽃인 88열차를 타며 짜릿한 스릴을 느낀 뒤 맛있는 도시락을 먹곤 했다.

어린이 큰잔치 (1987, 서울효창운동장)

서울시가 주최하는 어린이 큰잔치가 서울 효창공원에서 열리면서 평소 보기 힘든 모터사이클 시범경기는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회원 여러분의 '어렸을 적 추억'을 담아드립니다.

「The-K 매거진」은 회원 여러분의 학창 시절 추억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시절의 즐거웠던 순간이 담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도 「우리 어렸을 적에」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어른이 되어서도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 동심으로 함께 부르는 노래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김애경 교육장

어린 시절을 추억할 때면 자연스레 입가에 맴도는 동요가 있다. 맑은 멜로디에 순수한 노랫말을 흥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다. 교육자이자 작곡가로서, 30년 동안 동요를 작곡해 온 김애경 교육장은 “동요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세상의 다양한 음악에는 저마다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 동요가 필요한 이유를 김애경 교육장에게 들었다.

글 정라희 / 사진 이용기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교사 아내가 곡을 짓고 시인 남편이 글을 붙인 동심의 노래

“소리는 새콤새콤 새콤하게, 글은 달콤 달콤하게...” 김애경 교육장의 대표곡 ‘소리는 새콤 글은 달콤’의 한 구절이다. 곡은 김애경 교육장이 짓고, 노랫말은 당시 중학교 국어 교사였던 배우자 박수진 시인이 붙였다. 1993년 ‘눈 내린 마을’이 제11회 MBC 창작동요제에서 입상하며 동요 작곡가로 데뷔한 김애경 교육장은 만 30년 동안 ‘우리 그렇게 살자’, ‘꽃처럼 하얗게’, ‘정다운 이웃’, ‘나비 가는 길’, ‘잠자리’ 등 300여 곡을 발표한 현역이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곡도 여럿이다. 교사 부부가 함께 고민하며 완성한

동요는 단어 하나, 소리 하나에도 부르는 이와 듣는 이를 생각한 흔적이 묻어난다.

“글로는 똑같이 ‘눈’으로 쓰더라도 장모음으로 입을 때와 단모음으로 입을 때의 뜻이 다르잖아요. 한편으로 ‘땅’이라는 단어는 음악에서는 저음에 두어야 의미 전달이 분명해지고요. 흘러가듯 노래를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있죠. 하지만 노랫말과 가락이 적절하게 맺어질 때 전달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남편이 작사를 하다 보니 곡에 대한 논의를 자주, 깊이 합니다.”

오랜 시간 세공하듯 매만져 내놓은 동요도 있지만, 몇 날 며

칠 입으로 노랫말을 되뇌다 순간적 영감으로 완성한 것도 있다. 음악을 먼저 만들어 갈 때도 있지만, 가끔은 선물처럼 받아 든 노랫말에 곡을 따라 붙이기도 한다. 특히 ‘친구야 넌 보았니 사랑대는 초록 바람으로~’로 시작하는 ‘우리 그렇게 살자’는 김애경 교육장이 그려놓은 심상을 박수진 시인이 글로 완성하고 다시 곡을 붙였다.

“한번은 남편에게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느끼면서 예쁘게 성장하고 싶은 바람을 담은 노랫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어요. 당시 남편이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학교에서 대공원으로 봄소풍을 간 거예요. 새잎이 돌아오고 꽃 피는 시기에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니 노랫말이 딱 떠올랐나 봐요. 그날 집에 와서 ‘선물’이라며 노랫말을 건네주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상상하던 그대로였죠. 이렇게 좋은 노랫말을 받았는데 곡을 더 잘 써야 한다는 생각에 한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부터 머릿속으로 시 낭송하듯 되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5분 만에 멜로디가 나오더라고요. 가락과 리듬, 멜로디가 몸속에 녹아 있다 한 번에 터져 나온 거죠. 덕분에 지금도 가장 사랑받는 곡이 되었습니다.”

동요 작곡가가 된 초등학교 교사

1983년에 초등학교 교사로 교직에 입문한 김애경 교육장은 어떻게 동요 작곡가가 되었을까? 처음에는 육아를 시작하며 ‘우리 아이와 함께 부를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계기였다. 때마침 KBS 창작동요대회가 열렸다. 교대에 다니던 시절에 심화 전공으로 음악을 했지만, 정식으로

작곡을 배운 적은 없었다. 하지만 첫 작품 ‘산 이슬비’가 예선에 선발되면서 가능성을 보였다.

“1993년에 MBC 창작동요제 본선에 ‘눈 내린 마을’로 진출했을 때엔 오케스트라 지휘자분이 벌써 노랫말을 다 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이 노래가 참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한자리에서 한 번에 곡을 선보여야 하는 대회 특성상, 가창자의 실력이나 담력도 무대에서는 중요했다. 본선 진출에 만족하며 초보 작곡가로서 조금씩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쌓은 경험이 어느새 자산이 되었다. 스스로 실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우리나라 동요계의 대부로 꼽히는 이수인 작곡가를 찾아가 정식으로 작곡법을 배웠다.

“2년 동안 선생님께 사사하면서 곡이 조금씩 깊어졌어요. 이전에는 대학 때 배운 것과 혼자 익힌 화성법이 전부였는데, 아무래도 좋은 곡을 쓰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제대로 공부하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대회 성적도 좋아졌다. 그렇게 1995년 제1회 KBS 환경사랑창작동요제에서 ‘우리 작은 손으로’로 대상과 작사상을 수상하고, 이후 전국 규모 창작동요대회에서 열 차례 넘는 대상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 프로그램 음악 작업과 가곡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다.

동요를 부르며 용기와 희망을 얻는 아이들

세대를 초월해 같은 동요를 부르며 공감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 아이들에게는 동요보다 가요가 더 가까이 있는 듯 보



2003년 고향의 봄 창작 동요제 대상 수상



2014년 대한민국동요대상 시상식



인다. 김애경 교육장이 작곡가로 데뷔한 1990년대만 해도 방송사마다 창작동요대회가 열렸고, 상을 받은 곡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여기저기 울려 퍼졌다. 하지만 프로그램 시청 환경이 달라지고, 성인 위주 프로그램이 넘쳐나면서 각 방송사가 주최하던 창작동요대회가 차례차례 폐지 수순을 밟았고, 지금은 KBS 창작동요대회와 각 지역 창작동요대회가 맥을 잇고 있다.

“요즘 예전보다 동요를 많이 부르지 않게 된 데에는 미디어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 방송사들이 시청률과는 별개로 창작동요대회의 부활에 대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요가 외국에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가요의 노랫말은 정서 순화나 희망, 꿈을 노래하기보다 한탄 조나 애조가 더 많아요. 어린이 정서에 맞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데 동요는 희망적이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랫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맑고 순수한 노랫말에 멜로디를 붙인 곡은 당연히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인성

교육 차원에서도 중요하고요.”

그 역시 어린 시절에 동요를 부르며 용기를 얻은 기억이 있다.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담임 선생님의 지명으로 친구들과 앞에서 난생처음 큰 소리로 노래한 기억은 내성적이었던 그에게 ‘교사’의 꿈을 심어주었다.

2015년, 서울남정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는 ‘교장과 함께하는 동요 교실’을 열어 직접 학습을 돌며 아이들과 동요를 부르고, 중창부를 만들어 지도하기도 했다. 동요 교육을 하고 싶은 후배 교사들이 제자를 자처하며 손을 보탰다. 열정적인 교사와 아이들이 만난 덕에 중창부를 결성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청개구리’라는 노래로 전국동요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후로는 학교 안에서 자연스레 동요 붐이 일어났다. 비슷한 효과는 이미 다른 학교에서도 반복해 일어났다. 학교에서 동요를 불러본 아이들은 자연스레 동요가 주는 순수한 매력에 빠져든다.

동요는 아이들의 마음을 살찌우는 최고 보약

학교에서 동요를 배우고 부르는 교육적 효과는 더 있다. 김애경 교육장은 교사들이 동요를 지도할 때 녹음으로 들려주기보다 교사가 소리 내 선창하라고 권유한다. 잘 부르면 잘 부르는 대로, 설령 노래 솜씨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의욕을 심어주는 까닭이다.

“좋은 노랫말을 만나면 신이 나서 곡을 쓰면서 저도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이들에게 동요를 가르쳐주고 함께 부르는 시간은 아이들의 마음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입니다.”



KBS 스승찾기 프로그램 출연



어린이안전창작동요제 대상 수상



2022년 3월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 부임한 김애경 교육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난 지금 동요 부르기가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3년이나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이 늘어난 까닭이다. 이를 위해 그는 교육청 차원에서 마음 치유와 관련한 지원단을 꾸리고 각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동대문구와 중랑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각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동요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바탕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 행사 개최 100주년을 맞은 해다. 1922년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는 1924년 우리나라 창작동요의 효시인 ‘반달’과 ‘설날’이 발표되었다. 김애경 교육장이 몸담고 있는 (사)한국동요문화협회에서는 동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창작동요 100년사」를 집필하고 있는데, 그는 이 프로젝트에 주요 집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김애경 교육장은 교육장 임기가 끝나고 일선 학교로 돌아가면 다시금 현장에서의 동요 교육에 나설 생각이다. 동요 교육에 대한 그의 철학은 확고하다. 어린 시절 동요를 부르는 일은 동심을 간직할 마음의 고향을 지키는 일이다. “동요 같은 어린이를 위한 문화를 건너뛰고 바로 어른 문화를

받아들이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돌아갈 마음의 고향이 사라져요. 경쟁적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인생의 부침을 겪을 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요를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동요를 부르며 40년을 지내온 김애경 교육장에게 교사는 직업이 아닌 소명이다. 그는 “다시 인생을 살더라도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한다. 그에게 교사는 아이들의 순수한 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누고 키워줄 수 있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천직인 까닭이다. ㊸



교육공로 대통령 표창

교육수단으로 급부상하는 AI 달라지는 교사의 역할과 교육현장

쉬지 않고 지식을 학습하는 AI 기술의 발달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측한다. AI 시대, AI와 공존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는 어떻게 변화에 대처해야 할까? AI 기술 발달에 따른 지식과 인재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글 김보배(『2025미래 교육 대전환』 작가)



자기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인문, 과학기술, 예체능을 섭렵하는 융합형 창의 인재로 미래의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다.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개개인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며, 의사소통 역량이나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이 중시된다. 이와 같은 미래 인재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AI 시대, 지식과 인재상의 변화

그동안 지식은 고정불변한 것으로 여겨졌다. 학문은 세분화되었고, 교육 내용은 구조화되었다. 학문의 체계는 견고했다. 그리고 그 체계를 과정에 따라 습득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었다.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받고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었다. 지식은 대학이라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면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소속되어 지식을 교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AI 시대, 지금의 지식은 어떻게? 모든 분야에 걸쳐 방대한 지식이 무료로 공개되었다. 무료일 뿐 아니라 어제 진리라고 믿었던 지식이 오늘날 틀린 것이 되기도 한다. 지식은 유동적이며, 질문의 답은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해진 것은 물론, 윤리 기준에 따라 완전히 뒤집히기도 한다. 지식은 더 이상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매일 변화하며 사람들 간 공유와 참여, 협력을 통해 융합되고 재구성된다.

특히 AI 기술 발달은 전 직업 영역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직종의 성격이 변화를 거듭한다. AI는 쉬지 않고 인터넷의 여러 데이터를 스스로 습득하며 인간의 지식을 손쉽게 뛰어넘는다. 더 나아가 소설이나 시를 쓰거나 그림을 창작하는 등 과거 인간의 창의성에 기대었던 다양한 결과물을 순식간에 내놓기도 한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AI 발달로 앞으로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 예측하기도 한다.

이 같은 변화로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다.

변화의 길목에 선 학교와 교사의 역할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이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로 국내외에서는 미래 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의 역할과 목적은 학생의 개별적 성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개인별 교육과정 및 무학년제로, 교사 주도의 지식 전달 중심 교수·학습 과정은 학생 중심의 지식 기반 프로젝트 학습으로, 총괄평가와 상대평가 중심의 평가 방식은 과정 평가와 절대평가로 혁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개인별 학습을 지원하거나 학생들의 협력과 문제 해결 과정을 돕는 학습의 조력자 혹은 설계자, 환경 조성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 개개인의 관심사와 재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학습 과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지닌 다양성 속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과거 교실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생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교사의 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고, 이에 비해 학생 수는 많았기에 수업은 평균 이상의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졌고, 교육과정 역시 전국 학생들이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되었다. 그러나 AI 기술이 교사의 역할을 보조하면서 학생 한 명당 교사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게 된다. 모든 과정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와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바와 같이 2025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과목 중 흥미와 전공에 따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듣고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듯이, 고등학생들도 공통과목을 이수한 뒤 각자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재능과 관심사를 발견하고 이에 따라 AI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사 위주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형, 문제 해결형 수업으로 구성해야 한다. 미래 융복합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창의적 질문과 독창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교수·학습 방법 혁신이 필수다.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으로 인간은 AI와 그 능력을 겨룰 수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질문을 발견하고, 협업하며 융합적 관점으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창안해 나가는 과정이다.

셋째, 앞으로의 사회에서 인간은 인간과 협업할 뿐 아니라 AI와도 협업해야 하므로 AI 기초 소양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

고 교과별로 적용해야 한다. 2017년 중국 국제인터넷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바둑의 미래 서밋’에서 진행된 바둑 경기는 AI와 인간이 어떻게 협업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이 경기는 알파고와 인간이 협업해 경기를 하는 복식 바둑 경기였는데, 그 결과 알파고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선수 팀이 우승을 거두었다. 이처럼 학생들은 향후 AI 기술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어느 분야에서나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AI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 중요성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하며, 각 교과에서도 AI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AI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수업 과정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학습 과정 설계뿐 아니라 학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학생별로 완전 학습에 이를 수 있도록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미흡한 점은 데이터로 분석해 학습 결과를 피드백하는 등 개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이때 학생의 학습 습관이나 능력의 수준, 학습 선호도 분석 등을 통해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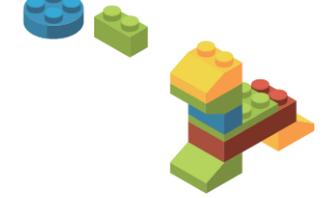


들이 자신이 학습하고자 하는 영역이나 도전 정신을 가지는 과제를 파악하고 학습 동기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AI가 아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감정이나 중독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공감과 배려의 자세를 지니는 등 인간성이나 윤리성에 중점을 두고 끊임없이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㉔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로와 직업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잡(job)자」는 직업 교육 전문가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 사회의 직업들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

아이들은 게임하고 다른 아이들과 노는 일을 너무나 신나 한다. 반면 지식을 습득하고 익히는 공부는 어려워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더 재미있고 신나게 놀면서 공부할 방법은 없을까? 게임하듯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고민하는 직업이 있다.

놀이하듯 공부할 수 있는 교육용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 에듀 툴킷 디자이너다. 본래 에듀 툴킷은 교육(education)과 도구 상자(toolkit)에서 온 말로 아이들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용 교구를 의미한다.

아이들이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킷의 종류는 다양하다. 보드게임, 카드, 그림 그리기, 심리테스트, 각종 활동지 등이 에듀 툴킷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듀 툴킷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교육공학, 디자인, 컴퓨터공학 전공자 유리

에듀 툴킷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다양하다. 먼저 아이들이 공부할 학습 주제를 고려하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북돋을 수 있는 소재를 계획한다. 둘째,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적절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정한다. 셋째, 학습 주제와 교육 방법을 고려해 교육용 도구를 디자인하고 제작한다. 넷째, 개발된 에듀 툴킷의 활용 방법을 교사나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에듀 툴킷 디자이너는 대학에서 교육공학, 디자인, 컴퓨터공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용 도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디자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도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디자인 능력,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 등을 한 사람이 모두 갖추면 좋지만, 각기 다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능력 필요

온라인으로 에듀 툴킷을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유리하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머신러닝,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앞으로 중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컴퓨터를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

하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섬세함과 꼼꼼함이 필요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익힐 수 있는 학습 능력도 중요하다. 사무용 소프트웨어, 디자인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기능은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에듀 툴킷 디자이너가 되려면 교육용 교구를 제작하는 전문업체, 교재를 출간하는 출판사, 교육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해 경력을 쌓을 수 있다. 실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은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

온라인 분야의 전망은 밝은 편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비대면 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전자책,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용 도구를 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된 기능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용 도구는 앞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첨단 교육용 도구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에듀 툴킷 디자이너의 역량은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에듀 툴킷 디자이너는 교육산업뿐 아니라 게임, 미디어, 공학 분야에서도 필요한 직업인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대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까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용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㉔



놀이하듯 공부하자! 에듀 툴킷(Edu Toolkit) 디자이너

아이들에게 공부와 놀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누구나 놀이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놀이도 공부도 꼭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활동 모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부모가 직접 그 사이에서 놀이와 공부의 균형을 잡아주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도 될 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들을 위해 요즘 떠오르고 있는 것이 에듀 툴킷이다. 에듀 툴킷이란 공부를 게임하듯이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다양한 도구다. 덕분에 이를 제작하는 에듀 툴킷 디자이너도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갈수록 다양한 교육법이 등장하는 이 시대에 에듀 툴킷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소개한다.

글 한상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림책의 숲에서 창작하고 치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삶'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종그연) 이현아·조시온 교사

‘좋아서’를 명사로 연결하면 ‘길’이나 ‘꿈’이 적합할 듯하다. 좋아서 하는 일이 ‘없던 길’을 내고 ‘새로운 꿈’을 낳는 까닭이다. 그 여정에 ‘벗’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지치지 않고 쫓 좋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아·조시온 교사는 그림책으로 삶을 탐구하는 교육 공동체 ‘종그연(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의 운영진이자 작가들이다. 그림책으로 수업하고 직접 그림책을 창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간다. 이런 시간이 쌓여가면서 좋았던 것이 점점 더 좋아진다.

글 박미경 / 사진 이용기



이현아 교사
서울개일초등학교

조시온 교사
서울양전초등학교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림책으로 소통하는 교육 공동체

성향은 달라도 취향과 지향은 같다.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니,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도 마음과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다. 두 사람은 14년 지기다. 초보 교사 시절을 함께한 옛 직장 동료이자, 상대방의 고민을 눈 밝게 알아보고 발 빠르게 도와주는 친구 사이이다. 그 우정의 중심에 그림책이 있다. 아이들의 영혼과 교감하면서 아이들이 지닌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끌어내게’ 도와주는 교육. 그 도구로 선택한 그림책이 그들의 관계를 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한다. 두 사람만이 아니다. 학교 안에서 시작된 활동을 학교 밖으로 넓혀가면서, 수천 명의 회원이 수천 개의 동심원을 ‘따로 또 같이’ 그리고 있다. 삶을 담은 그림책으로, 별을 품은 ‘우주’를 만들어 간다.

“종그연은 2017년 가을, 그림책에 관심이 많은 현직 교사 8명이 모여 만들었어요. 현재는 15명의 운영진과 5,500여 명의 네이버카페 회원이 그림책을 매개로 활발히 소통 중이에요. 직업도, 지역도, 연령대도 다양해요. 모임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학교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신나게 해나가고 있어요.” 종그연 대표 이현아 교사(서울개일초등학교)의 말이다.

통로는 ‘통하여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이다. 종그연 교사들은 그림책으로 그 길을 낸다. 같이 감상하고 따로 창작하면서, 미처 몰랐던 내면과 비로소 해후한다. 중요한 것은 독자에서 창작자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그들은 읽기를 ‘들숨’으로, 쓰기를 ‘날숨’으로 표현한다. 숨을 들이쉬고 나면 시원하게 내뿜고 싶어지는 것처럼, 그림책을 읽다 보면 자기 안에 피어오른 이야기를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그 사실을 알았던 이현아 교사는 2015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교실 속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읽기와 쓰기를 번갈아 하는, 감상과 창작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순환 그림책 수업을 공교육의 틀 안에서 진행한 것이다. 그 곁에 조시온 교사(서울양전초등학교)가 있었다. 2010년 서울청담초등학교에서 첫 교직 생활을 시작한 이현아 교사는 그 학교에서 이미 근무 중이던 조시온 교사와 그림책 수업에 대해 수시로 이야기를 나눴다. ‘육여넣는’ 교육에서 ‘꺼내 놓는’ 교육으로, 그림책을 통한 변화의 길에 조시온 교사도 합류했다.



감상에서 창작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삶으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 자신들의 경험이나 감정을 솔직히 꺼내 놓더라고요. 그게 창작의 씨앗이에요. 회복의 출발이구요. 독립 출판으로 아이들의 그림책을 꾸준히 묶어오면서, 그림책 창작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오롯이 지켜볼 수 있었어요.” 조시온 교사의 눈빛이 아이처럼 반짝거린다. 창작의 주체는 어린이들만이 아니다. 종그연의 주요 철학은 ‘아이들 곁에서 교사도 함께 창작하는 것’이다. 종그연 운영진 교사들이 그동안 펴내고 번역하고 기획한 책은 「좋아서 읽습니다, 그림책」이라는 공저 에세이를 비롯해 약 60권이 다.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렇듯, 교사들도 스스로 발견해 낸 마음들을 그림책으로 한 권씩 담아내고 있다. 두 사람도 저서가 꽤 된다. 이현아 교사는 자신의 그림책 수업 노하우를 담은 「그림책 한 권의 힘」 외에 20여 권의 그림책과 디자인 교양서를 번역한 바 있다. 곧 직접 쓴 두 권의 어린이 책이 나온다. 우체통에 담긴 아이들의 고민에



따뜻한 답장과 적절한 그림책 처방을 내려주는 어린이 그림책 「마음약국」, 자신이 접하고 싶었던 삶의 가치를 어린이의 언어로 풀어낸 「용기 주는 말」이 그것이다. 조시온 교사에게는 네 권의 그림책 저서가 있다. 캄보디아 북벵초등학교에서 직접 봉사하며 겪은 일을 담은 「맨발로 축구를 한 날」, 교실에서 「화」를 다스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며 쓴 「앵거 게임」, 눈 대신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마음안경점」, 협력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는 「줄다리기」가 그것이다. 모두 교사로서 고민해 온 문제들을 담은 책이다. 교실이라는 ‘우물’에서 자신만의 글감을 그는 날마다 새롭게 퍼 올린다.

“어떤 주제로 글을 쓰려면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하더라고요.

그림책 창작이 저를 성장하는 삶으로 계속 이끌고 가요.” 창작에 대한 조시온 교사의 소회다.

이현아 교사도 마찬가지다. 창작을 시작한 후로 그는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가진 사람인지 수시로 생각하게 되고 고백한다. 교사로서 자신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건강한지 그림책이라는 거울을 통해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려면 ‘좋은 관점’을 가져야 하고, 그러려면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 ‘좋은 글’은 그 과정에서 나온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아이들의 내면을 일깨우는 그림책 수업

그림책을 수업으로 활용한 여러 사례 가운데 이현아 교사는 오드리 헵번의 아들이 쓴 「오드리 헵번 이야기」를 ‘우리 엄마 자서전 쓰기’로 연결해 본 경험담을 들려준다. 최근 외로웠던 적은 없는지, 언제 고향 생각이 나는지, 어떤 말을 들을 때 힘이 나는지... ‘가장 가깝기에 외려 더 모르는’ 엄마에게 아이들이 직접 물어 글을 써보게 했다. 아이들이 쓴 엄마의 자서전은 결국 아이들의 이야기가 됐다. 엄마라는 렌즈로 자신을 들여다보며 아이들의 마음이 한 뼘 더 자란 듯했다.

조시온 교사는 자신의 책 「마음안경점」으로 수업을 진행한 일화를 소개한다.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함께 읽은 후, 아이들 각자의 열등감을 쪽지에 익명으로 쓰게 했다. 그것을 무작위로 섞어 나눠주고 각자 자신이 받은 쪽지에 답을 적어주게 한 것이다. 그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알게 됐다. 크게만 보였던 자신의 고민이 친구들의 눈을 거치면 아주 작아 보인다는 것을, 건강한 생각을 가지려면 ‘관점’을 바꿔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식의 사례를 좋으면 선생님들은 무수히 경험했다. 그것들을 모은 공저 「그림책 수업」이 2024년 3월에 출간된다. 그 책이 우리 교육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그들은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림책의 숲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아이들

현직 교사들의 취향 공동체 겸 교육 공동체로 출발한 좋그연은 어느덧 그림책 애호가들의 치유 공동체이자 성장 공동체가 되어간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퇴근 길에 모여 그림책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했다. 한 달에 한번 오픈 강연을 진행하며 전국 교사들과도 소통했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고, 이후 동명의 네이버카페를 개설해 학교 밖 사람들과 길을 함께 걸어왔다. 대형 강연 대신 15명의 운영진이 매월 주제를 정해 ‘월간 좋그연’이라는 오프라인 소모임도 시작했다. ‘수업이 좋아서’, ‘그리니까 좋아서’, ‘밈줄이 좋아서’ 같은 주제로, 저마다의 관심사를

품은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그림책 사랑을 흠뻑 나누고 간다.

“2019년 가을, 캠핑 형식으로 마련한 오픈 강연이 기억에 남아요. 그때 진행자가 우리 둘이었어요. 무대 위에 텐트를 쳐놓고 도란도란 대화를 이어가는데, 반딧불이와 풀벌레 소리가 조명과 음향을 대신해 주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힐링 캠프였죠. 한 번을 만나도, 오감을 만족시키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요.” 이현아 교사의 말에 조시온 교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이 생각하는 그림책은 ‘삶의 압축판’이다. 인생의 모든 화두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이다. 치유는 ‘이야기’를 타고 온다. 그림책의 숲을 누비며 자기 안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 어른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불현듯 큰 힘이 된다. ㉞

'꿈 너머 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꿈 너머 꿈'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회원님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힘 있는 도전을 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The-K 매거진」이 회원님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아이도 부모도 어려운 건 매한가지 관계에 능동적인 우리 아이 만들기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끈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작게는 사소한 다툼부터 크게는 학교 폭력까지 학교생활 중 아이들이 겪는 친구와의 갈등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겪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일이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교우 관계는 학업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부모세대에 비해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익힐 기회가 적어 능동적으로 갈등을 이겨낼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이를 더 크게 느끼게 한다. 그렇다고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도 어려운 정답 없는 문제, 친구와의 갈등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글 박재원 부모 교육 전문가



☑ '응답하라'는 이제 없다

친구 문제로 골몰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선불리 개입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따름이다.

우선 요즘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부터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 세대에게는 너무도 당연했던 동네 친구가 대부분 사라졌다. 일부 학원에서 만나는 관계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오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던 시절에 비할 수 없다. 사춘 형제는 물론 친인척과도 자주 만나지 않는다. 외동인 경우라면 형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조차 해볼 기회가 없다.

사회성을 연습할 기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의 수, 관계의 질적 측면, 지속 시간 등에서 기회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굳이 감정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을 통해 관계와 소통의 욕구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성이 살아 있는 공동체로는 학교가 유력한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부모 세대가 경험한 것과 요즘 아이들이 체감하는 경쟁의 강도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성 발달이 부진한데 평생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아닌 경쟁자들이 모인 교실이 된 것이다.

☑ 성장욕구 충족을 통한 문제 해결 접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슬로(Abraham.H.Maslow)의 욕구단계 이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욕구단계 이론에서 말하길 아이들은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 그리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 등이 포함된 '결핍욕구'가 먼저 채워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성장욕구'인 자아실현욕구

가 발동, 공부에 몰입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다. 흔하게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결국 일상생활에서 결핍욕구가 순조롭게 충족되어야 성장욕구가 힘을 얻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가족 관계, 친구 관계가 좋아야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친구 관계가 공부에 방해가 되는 사정을 알게 된다. 친구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공부 의욕을 잃게 된다고 봐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모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드러난다.

친구 관계를 단순히 아이의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본다면 차단과 통제 중심으로 접근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회성 발달이 부진한 상태에서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친구 관계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충조평판'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

우선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 끼리끼리 모여 집단행동을 하면서 영역 싸움을 하고, 잘난 체와 멋 부리기에 열중하며 속임수까지 동원하는, 어른이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행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끈대'스러운 '충조평판(충고·조언·평가·판단)'은 절대 삼가야 한다. 선부른 충고는 거부감을 유발하고, 조언은 정반대로 작용한다. 평가는 자존심을 건드리고, 일방적 판단은 귀를 닫게 한다.

'충조평판'은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친구 관계에 가족 문제까지 가세하는 형국으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옳은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기법을 소개하자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정 카드(무드 미터)'를 활용해 아이가 자기감정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를 고르게 한다.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지하게 질문한다. 아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감정에 따른 행동에 부모가 반응하면 갈등을 겪지만, 어떤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깊은 공감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지고 서로 깊이 연결된다. 특히 최근 들어서 MZ세대 사이에서 SNS를 통한 보여주기

식 문화가 성행하면서 경제적, 정서적 양육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아이들은 유행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의 SNS 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아이들이 이른 시기부터 타인의 인정과 시선에 현혹되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타인과 신뢰 있는 관계 맺음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우선, 부모는 가정에서 먼저 자녀의 단점과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고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공부 이외 활동도 반드시 필요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는 부모들이 놓치는 사회성 발달의 풍부한 기회는 동호회(동아리) 활동이다. 혼자서는 얻기 어려운 만족감을 함께 활동하면서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성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요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MBTI가 유행인데,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점이 있어 친해졌지만 다른 점을 보고 멀어지지 않으려면 꼭 필요하다. 조금 더 나아가 성격유형을 9가지로 나눠 각 유형들의 특징을 분석하는 에니어그램 검사를 적극 추천한다. 아이를 낳은 어른은 나이를 먹어도 잘 달라지지 않지만 성장 과정 중인 아이들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변화한다. 부모 역할, 아이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다. "아이가 예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부모의 주도권이 유효했던, 그리고 아이가 순종적이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아이의 친구 관계가 고민이라면 먼저 자신과 아이 관계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묻는다. '지금 내 아이는 어느 쪽일까?'

- 나쁜 친구가 유혹해도 평소 자신을 굳게 믿고 존중하던 부모 얼굴이 떠올라 뿌리친다.
- 평소 부모의 '충조평판' 스트레스가 심해져 나쁜 친구라도 만나 위로받고 싶다.

친구 관계와 가족 관계는 서로 맞물려 있다.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느낌으로 섭취해야 하는 '3대 마음 영양소'와도 같은 소속감, 자율감, 유능감이 굶주린 아이들이 늘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K)

우리 작은도서관은 동네 사랑방이자 꿈이 자라는 동지입니다

동지작은도서관 관장 이경희 회원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한 말이다. 책은 세상을 내다보는 동지이자, 꿈이 깃드는 보금자리다. 그래서 나와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다. 이경희 회원이 퇴직 후 작은도서관을 세운 이유다. 우리 동네 동지 지킴이 이경희 회원을 만났다.

글 이성미 / 사진 이용기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평생 일터였던 교실에서 골목길 배움터로 전학 왔습니다

충남 서산시 변화로 한편에는 문화가 자라나는 동지가 있다. 이경희·구장완 회원 부부가 운영하는 ‘동지작은도서관’이 그곳이다. 작은도서관이란, 지역민 가까이 위치하며 다양한 독서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말한다. 2021년 5월 개관해 현재 3,5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동지작은도서관에서는 매월 2개 이상의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지작은도서관 관장인 이경희 회원은 이곳을 ‘골목길 배움터’라고 정의한다. 집 가까이 골목길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며 배움을 선물하는 곳 말이다. 약 40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그는 퇴임 후 골목길에 누구나 학생이 되는 교실을 열었다.

이경희 회원은 1982년 충남 당진중학교에 첫 발령을 받은 후 2021년 경북 링컨중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퇴임할 때까지 39년 동안 교직에 몸담았다. 교직에 있는 동안 그는 학교를 ‘마음을 나누는 곳’이라 여기며, 학생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면밀히 들여다보려 노력했다. 교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학생들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내적 성장에도 힘썼다. 특히 교사 독서 모임을 통해 다양한 책을 접한 것은 그의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퇴직 후, 이경희 회원은 학교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기로 했다.

“학교는 제게 평생 일터이자 배움터였습니다. 귀한 경험을 참 많이 쌓았죠.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보니 그 사실을 더 잘 알겠어요. 교직에 있는 동안 쌓은 노하우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독서 모임을 통해 여러 책을 접해 본 것이나, 축제 때 부스를 만들어 학생들과 체험 활동을 해본 일, 학교 도서관 업무를 맡아본 일 등 지나고 보니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퇴직 전부터 작은도서관을 세우기로 계획한 것은 아니다. 여생을 무료하게 지낼 생각은 없었지만, 어떤 일을 할지 쉽사리 결심이 서지 않았다. 다만 평소 경로당 봉사 활동을 다니며 ‘노인복지학을 공부해 두면 좋겠다’ 싶어 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해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다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본격적으로 작은도서관에 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 좋은 점이 참 많을 것 같았어요.



먼저, 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문화 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봉사하며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또 남편인 구장완 회원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도 참 좋았습니다.”

작은도서관이 가진 큰 힘

작은도서관은 이경희·구장완 회원에게도 배움터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 일부터 홍보, 지역 행사 참여, 도서 관리, 회원 관리 등 무엇 하나 이경희 회원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다. 홍보 배너를 디자인하고 문구 하나 만드는 일조차 자기 몫이다. 그 덕에 다양한 분야를 두루 공부하면서, 이경희 회원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다. 어린아이부터 70대까지 전 연령대와 어울리며 배우는 것도 많다. 구장완 회원은 서예를 배운 경험을 살려 작은도서관에서 수강생들에게 캘리그래피를 가르치고 있다. 시민들을 만나기에 앞서 새롭게 관련 지식을 배우고 연습하다 보면, 부부는 마치 학생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든다. 작은도서관에서는 누구나 선생님도, 학생도 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캘리그래피 수업을 듣던 70대 수강생이 강연자가 되어 시민들 앞에서 특강을 할 계획이다. 또 지역



어르신들이 강사가 되어 전통 고추장 담그기, 천연 염색, 폐 식용유를 이용한 비누 만들기 등의 수업도 준비하고 있다. 어르신에게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드리며, 이경희 회원은 작은 도서관 사업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다시금 깨닫는다. “작은도서관을 홍보할 겸 최근에 지역 플리 마켓에 참가했어요. 부스 뒤편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어르신이나 나와 ‘책이 예쁘네요’라며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이 닿아 도서관에서 캘리그래피 수업도 들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르신께서 ‘나이가 들어 마땅히 어울릴 만한 곳이 없었는데 도서관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니 행복하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알고 보니 이름난 수필가인 이영숙 작가님이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서

강연회를 열었죠. 수강생이던 분이 강연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한다면 누구나 작은도서관의 관장도 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설립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다. 10평 이상의 장소와 1,000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6석 이상의 좌석을 꾸릴 수 있으면 된다. 장서를 모으기 힘들다면 기부처를 찾거나 지역 중고 마켓을 검색해 보길 추천한다. 후원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도 미리 찾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유지비와 필요 경비를 고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동지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후원회가 꾸려져 정기 모금을 통해 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 문화단체 등의 지원을 받거나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다면 더 풍성하게 작은도서관을 채워나갈 수 있다.
작은도서관을 세울 때 필요한 또 한 가지는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경희·구장완 회원은 도서관의 관장, 강사인 동시에 자원봉사자다. 캘리그래피 프로그램도 재료비만 받고, 수강비는 무료로 진행한다. “감사합니다”, “골목 안에 도서관이 있어서 참 좋아요”. 오가는 이들의 말과 마음이 부부가 작은도서관에서 가져가는 수익의 전부다. 그러나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마음이 넉넉하다.



작은도서관 덕분에 세상도 나도 젊고 새로워집니다

친절, 봉사, 사랑 등 따뜻한 속성의 것은 모두 관심에서 탄생한다. 이웃에 대한 관심은 매월 동지작은도서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모습으로 탄생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도록 이끈다. 더불어 이경희·구장완 회원 부부를 성장하게 한다. 구장완 회원은 “우리 부부가 젊게 살 수 있는 비결도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관심은 ‘도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세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여러분도 제2의 인생을 더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물으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나는 어떤 일을 잘하고 무엇을 잘하고 싶어 하는지 묻고, 주변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아마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지작은도서관은 관심과 관심이 연결되는 동지이기도 하다. 이경희 회원은 이곳에서 도서관 주변 작은 공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웃의 인생 이야기도 듣는다. 그러면서 서산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동지 밖으로 날아가기도 한다.
“서산은 농어촌 지역이 넓게 자리하고 있는 데다 어르신 인구 비중도 높습니다. 변화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농촌이예요. 달리 말하면, 문화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죠. 그래서 ‘힐링시네마타운’이라는 영화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 스크린을 가지고 다니며 농촌 어르신들에게 영화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서산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봉사를 나가기도 하고요. 요즘은 텔레비전만 틀어도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커다란 스크린으로 보면 색다르게 느껴지시나 봐요. 회원들이 간식도



좀 챙겨서 가는데,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세요.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기분이 좋고요. 교직에 있을 때는 학교와 학생만을 생각했는데, 나와 보니 우리 주변에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저도 더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이경희 회원은 앞으로도 동지작은도서관을 책과 만나고, 사람과 만나고, 문화와 만나는 장소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살려 책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도 계속 선보이려 한다. 어린이를 위한 책놀이 활동, 청소년을 위한 진로 연계 독서 활동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다 보면 책과 사람들의 힘으로 변화로를 문화가 번성하는 거리로, 나아가 서산을 문화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다행히 도서관 주변으로 시민센터와 청년지원센터, 갤러리, 공방 등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 변화로가 문화 거리로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동지에서 시작한 이경희 회원의 작은 날갯짓이 서산에 커다란 바람을 일으킬 날도 머지않았다. ㉔

‘인생 이모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재능을 기부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의미 있는 인생 이모작을 실현하고 있는 회원님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The-K 매거진」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전해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섬진강 변 물들이는 꽃의 여왕 장미와 만나다 도깨비 전설 흐르는 지리산 자락의 고장

전남 곡성군

민족의 영산 지리산 자락을 적시며 흐르는 섬진강 변의 여러 고장 중에서 오월에 반드시 찾아야 할 곳으로는 단연 곡성을 꼽아야 한다. 향수 어린 증기기관차가 출발하는 섬진강 기차마을에서는 백만 송이 장미가 환상적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영롱한 햇살 가득 머금고 흐르는 섬진강 물 따라 도깨비 전설이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그곳, 곡성으로 떠난다.

글/사진 우인재 여행작가 / 사진 제공 곡성군청

우인재 작가는 10여 년간 출판사에서 여행 콘텐츠 기획 및 취재를 담당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 가이드북 로스앤젤레스 편을 비롯해 대한생명, 교보생명, 외환은행 등 보험·금융사 고객용 여행 가이드북을 기획 및 제작했다. 또 월간 「DOVE」, 「모터트렌드」 등의 매체를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롯데백화점, 조달청, 롯데제이티브, LS전선 등 기업체 사보에 여행, 드라이브 원고를 기고했다. 현재 프리랜서 여행작가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공원



장미정원

형형색색 장미의 천국, 섬진강 기차마을

남도의 젓줄 섬진강이 적시는 여러 고을 중에서도 이 계절에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이 바로 곡성이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덕에 아름다운 계곡이 유난히 많아 계곡이 성곽을 이루고 있는 듯 보여서일까? 곡성(谷城)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이 고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일 것이다. 이 계절에 곡성에서 섬진강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돼지불고기, 참깨 등을 맛보는 식도락 말고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가 하나 있다. 곡성을 내 바로 옆에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오월의 꽃 '장미'를 감상하는 일이 그것이다.

눈부신 오월의 햇살을 듬뿍 머금은 채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 변 기차마을은 이 무렵 온통 장미꽃으로 가득한 장미의 천국으로 변모한다. 10여 년 전부터 열리기 시작한 곡성세계장미축제를 개최지가 바로 이곳 기차마을이기 때문. 벌써 13회째를 맞이한 축제는 올해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열린다.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되는 축제 기간에는

무려 1,004종에 달하는 3만7,000주의 장미가 7만5,000m² 면적의 광활한 정원 곳곳에서 활짝 피어난다. 또 골든로즈 포토존, 한복 패션쇼, 뚝방마켓, 로즈 왈츠파티, 콘서트 등 다채로운 부대시설과 이벤트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아름다운 장미를 수집해 조성한 장미정원에는 연못 한가운데 소망정이라는 전통 정자를 세우고 다양한 수목을 식재했으며, 산책로를 조성해 형형색색 장미를 만끽할 수 있게 했다.

향수 가득 안고 달리는 증기기관차

물론 이 마을의 본래 주인인 '기차'와 만나지 않는다면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절반만 즐긴 셈이라고 보아야 한다. 뽕족한 박공지붕을 인 옛 곡성역(등록문화재 제122호)은 근대 철도 역사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해 대합실로 들어서는 순간 1930년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된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관광 증기기관차



곡성역사

폐선된 옛 전라선 철길을 재활용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그 옛날 증기기관차의 외형을 쏙 빼닮은 관광 열차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섬진강 기차마을 개장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관광 열차는 곡성군이 12억 원을 들여 제작한 추억 속 '미카 129호'다. 열차는 승객들에게 오월의 햇살이 내려앉은 섬진강 변을 달리는 진기한 경험을 선사한다.

증기기관차가 증기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외형만큼은 예전과 다를 바 없으며, 경쾌한 기적 소리도 그럴싸하다. 그 시절, 남도의 고장을 오가던 열차는 지금 관광객을 실어 나르며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기차보다는 감흥이 조금 덜 하지만 자동차로 섬진강을 둘러보는 방법도 있다. 지리산 서남쪽을 휘돌아 나가는 남도의 젓줄 섬진강은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을 거쳐 남해로 향한다. 바로 이 섬진강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섬진강 드라이브일 것이다. 드라이브 코스도 매우 단순해 헤매느라 창밖 풍경을 놓칠 염려도 없다.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출발해 17번 국도를 달리면 그뿐이다.

신비로운 도깨비 전설을 찾아서



아이와 함께라면 섬진강 물줄기 따라 전해지는 도깨비 전설을 들려주는 것은 어떨까. 조선조 태종 임금의 심복이었다는 마천목 장군과 도깨비살 전설이 그것. 돌을 쌓아 강물을 막은 뒤 나뭇가지를 촘촘하게 박아 물고기를 잡는 전통 고기잡이 방법을 가리켜 '어살'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살이 거센 강물에 어살을 조성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 그



도깨비마을

옛날 마천목 장군이 어머니에게 물고기를 잡아드리기 위해 섬진강에 나왔다가 푸른빛 돌을 주워 왔는데, 알고 보니 그 돌이 도깨비 두목이었다고 한다. 도깨비들이 장군을 찾아와 푸른 돌을 돌려준다면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하자, 장군은 어살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때 도깨비들이 만들어준 어살의 흔적이 아직도 섬진강에 남아 있다는 전설은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도깨비의 전설이 깃든 섬진강 변의 고달면 호곡리 산 중턱에는 창작 동화와 동요 그리고 인형극을 체험할 수 있는 섬진강 도깨비마을이 있다.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콘텐츠는 인형극으로 도깨비가 등장하는 '도깨비가 꿈지락 꿈지락'을 비롯해 다양한 인형극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스마트폰 영상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아날로그 연극의 생생하고 따스한 추억을 남겨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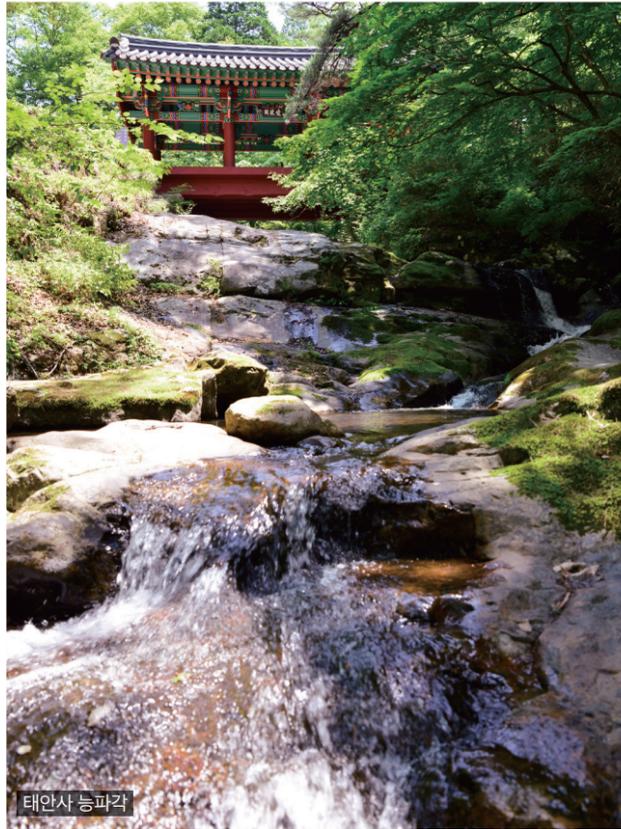
섬진강 드라이브길



계곡이 아름다운 고찰과 밤하늘의 별빛 

곡성군은 지리산 자락의 고장 구례, 하동과 이웃하고 있다. 두 고장이 보유한 화엄사와 쌍계사라는 명찰의 그늘에 가려 덜 알려졌지만 곡성에도 신라 시대 창건된 태안사와 계곡이 아름다운 도립사라는 훌륭한 사찰이 자리하고 있다. 두 사찰 모두 진입로를 따라 울창한 숲길이 이어지는 물 맑은 계곡을 품고 있어 한낮의 따가운 햇살을 피하기에 좋다. 태안사 답사의 백미는 능파각이다. 산문(山門)과 일주문(一柱門) 사이에 위치한 능파각(凌波閣)은 암반을 따라 맑은 계수가 흐르는 태안사계곡에 걸터앉은 모양새를 하고 있다. 태안사의 금강문인 이 다리는 맞배지붕을 얹은 정면 한 칸, 측면 세 칸의 누각을 겸하고 있으며 '미인의 가볍고 아름다운 걸음걸이'를 뜻하는 이름처럼 우아한 자태를 자랑한다. 보유한 문화재의 수나 전각의 고색만 놓고 보자면 태안사를 선택하겠지만 계곡은 도립사도 만만치 않은 자태를 자랑한다. 도립사는 아담한 사찰이지만 계곡을 따라 너른 암반 지대가 형성돼 있어 신선놀음하기에 더없이 좋을 뿐 아

니라 기차마을과도 가깝다. 여기서 여정을 마치는는 너무 아쉽다면, 그리고 1박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면 밤하늘의 은하수와 조우해 보자. 오염되지 않은 곡성의 밤하늘은 맨눈으로 봐도 좋지만 섬진강천문대를 방문해 천체망원경을 통해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 더욱 좋다. 섬진강천문대에는 국내 기술로 제작한 600mm 천체망원경을 비롯해 8m 원형 돔 스크린을 갖춘 천체투영실과 전시실, 시청각실 등 천체(天體)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는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인근에는 서시천을 따라 자리한 The-K지리산가족호텔이 있다. 수려한 지리산의 풍광을 조망하고 있는 이 호텔은 뛰어난 수질의 온천사우나를 갖추고 있는 전천후 휴양 시설로 공제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가족들과 여행지를 둘러본 후 머물기에 좋다. 지나치게 밝은 조명으로 별빛이 사라진 도시와 달리 곡성의 밤은 하늘을 가린 빌딩 숲도 없고, 밤을 낮처럼 밝히는 광고 전광판도 없다. 밤하늘에 가득 펼쳐지는 별들은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선명한 은하수를 선보인다. ㉔



태안사 능파각



태안사 삼층석탑



섬진강천문대

곡성으로 떠나는 식도락 여행 **지리산과 섬진강이 내어놓은 먹거리**



불향이 살아 있네! 흑돼지 숯불구이 

곡성은 예로부터 토종 흑돼지가 맛있기로 이름난 고장이다. 바로 이 토종 흑돼지에 갖은양념을 버무려 재운 고기를 숯불에 구워내는 것이 곡성군 석곡면의 별미 흑돼지 숯불구이라고 한다. 과거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만 해도 석곡면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 시절 여객 버스 수십대와 200여 대가 넘는 물류 트럭이 머물던 석곡면은 자연스럽게 운전기사와 승객이 모이던 장소. 이 일대 최고 인기 메뉴였던 흑돼지 숯불구이는 기름이 적고 육질이 부드러워 당시 하루 800상이 넘는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석곡식당(061-362-3133)과 석곡돼지한마리(061-362-3077) 등이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귀한 몸 은어 

1급수에 해당하는 청정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은어는 바위틈 이끼만 먹고 사는 어종이다. 지금은 개체 수가 줄어 보기 어려워졌지만 한때는 반짝이는 은어 비늘 때문에 섬진강이 은빛으로 빛났다는 민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 온다. 대충 그물로 뜨거나 나뭇가지로 내려쳐도 은어가 잡혔다고 하니 은어의 천국이었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귀한 먹거리의 명성이 허명은 아닌 것. 회와 구이, 튀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는 은어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해소와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으며, 「동의보감」에는 위를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계탕 맛집에서 은어 요리도 맛볼 수 있다.



달콤한 속살, 매콤한 국물이 매력적인 참계탕 

은어와 함께 곡성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참계탕. 참계가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에서만 살아가기 때문. 물 맑은 섬진강에서 잡아 올린 참계는 주로 얼큰한 탕으로 먹는다. 참계는 민물과 짠물이 만나는 강 하구로 내려가 산란을 하는데, 알에서 깨어난 어린 참계들은 본능적으로 어미가 깨어난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오른다고. 보통 우거지와 들깨를 갈아 넣어 끓이는데, 달달한 속살과 얼큰한 국물의 상반된 맛이 어우러져 곡성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했다. 새수궁가든(061-363-4633), 사계절횃집(061-362-1933)이 참계탕으로 유명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대인관계

나와 한 편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또는 나를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던 가족이, 더 이상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관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글 (주)다인



오늘날 대인관계는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생존능력인 듯 합니다. 가족, 학교, 직장 등 집단생활 속 구성원으로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이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한 집단에서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만큼이나 적을 만들지 않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관계를 맺고 유지해 가는 일 또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애착 관계가

필요하고, 회사나 사회에서는 적절한 거리에서 적당한 친밀감을 유지하는 관계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노력과 서로를 이해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의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갈등은 한순간 생기기보단 사소한 오해나 배려가 부족했던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발생합니다.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알아가는 '개방성'

다른 사람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탐색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과 경험을 공유한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를 표현해 '진짜 나'를 드러내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경계'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접근하고 다가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SNS나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거나 너무 감정적이고 신체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무너트리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들어주는 '경청'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있다는 것은 물론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만 깜박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눈을 맞추고 고개도 끄덕이며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표정으로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경청은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존중'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이란 상대의 모든 말에 동의하거나 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의견, 시간 등을 소중히 여기며 무시나 비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서로의 관심사를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가며 외로움도 극복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부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회복력도 증가시킵니다. 또한, 함께 어울리면 우울증과 자살 위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가요? 나의 의도와는 다른 말들이 툭 튀어나오거나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말과 표정들이 신경 쓰이시나요? 가끔은 사람과 엮이는 상황들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나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서서히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스킬들을 하나씩 알아가 보세요. 건강한 관계를 위한 나침반 역할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The-K 마음심」이용 안내 ♥

- **상담 대상**
한국고직원공제회 일반 회원
- **상담 신청**
The-K 마음심 전용 홈페이지(www.ktcu-hue.com)에서 회원 인증(회원 번호, 이름 입력 및 휴대폰 인증) 후 이용 가능, 전화(080-080-5988)



- **상담 횟수**
2년(22~23년도) 내 개별상담 1인당 5회 집단상담(6인 이내) 4회 무료 이용 가능
- **상담 시간**
평일·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사와 사전 협의)

- **상담 방법**
1:1 상담(대면·전화·화상·이메일 상담) 및 집단 상담(6인 이내)

※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소속기관 및 한국고직원공제회에 상담 내용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음심 홈페이지 ▲



코로나19 방역도 막지 못한 바이러스 감염병 줄었는데 장염 유행은 계속, 왜?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면서 독감, 감기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는 예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장염 환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인위생 관리가 소홀해져 장염 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장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글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장염 환자 수, 3년째 증가 추세

질병관리청에서 매주 발표하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 장염 환자 수는 2020년(1만 4,086명)부터 2022년(1만 9,876명)까지 지속해 늘었다. 장염은 여러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으로 유발되는 장관 감염증을 통칭해서 말하는데, 대부분 식품을 통해 전파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철저해진 위생 관념에도 장염 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크게 식사 위생과 손소독제 사용 증가로 꼽힌다. 집에서 밥을

해 먹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는 경우가 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일부 위생 상태를 알 수 없는 음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져 상대적으로 장염에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또 코로나19가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에 취약한 반면, 장염을 유발하는 병원성미생물인 노로바이러스는 외피가 없어 손소독제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도 장염 환자 수가 증가한 이유로 꼽힌다.

복통, 설사, 구토가 주 증상... 이온 음료 마셔야

장염이 발생하면 보통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가장 흔한 장염인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렸다면 소아는 구토, 성인은 설사가 주 증상으로 유발된다. 이 외에도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전반적인 신체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심하지 않으면 수분 섭취와 휴식만으로 호전되지만, 면역력과 소화 능력이 약한 어린이·고령자·만성질환자 등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경과를 잘 살펴봐야 한다. ▲심한 복통이 있거나 ▲몸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럽거나 ▲체온이 38℃ 이상 올랐거나 ▲대변·토사물에 혈액

이 섞여 있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호흡곤란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설사가 멈추지 않는다면 탈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물을 잘 챙겨 마셔야 한다. 미지근한 물, 이온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설사를 멈추려고 지사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 혈변이나 고열을 동반한 심한 장염이라면 오히려 증상이 장기화될 수 있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제품, 술, 카페인 함유 음료, 신 음식,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 양념을 많이 한 음식은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

예방하려면?



손 씻기 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을 잘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염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성미생물은 대부분 손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이다. 외출 후, 화장실 사용 후, 음식 준비 전, 식사 전 등 일상 생활 중 수시로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① 손바닥 마주 대고 문지르기 ② 손등과 손바닥 마주 대고 문지르기 ③ 손바닥 마주 대고 손가락 끼고 문지르기 ④ 양손을 주먹 친 채로 서로 문지르기 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다른 편 손가락을 돌려주며 문지르기 ⑥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올려놓고 문지르기의 여섯 단계를 30초 이상 따라 하면 된다. 30초를 세기 어렵다면 '곰 세 마리'나 '생일 축하' 노래를 두 번 부르면 된다.



고온 조리 장염을 유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사멸하려면 고온에서 조리해야 한다. 굴, 조개, 생선 등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거나 오염된 식품이나 식수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식품을 날것으로 섭취하지 않고 85℃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한 뒤 먹어야 한다.



음식 위생 관리 손에 있던 병원성미생물이 식품에 묻어 입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조리 중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조리 기구는 열탕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부엌 이곳저곳을 닦는 행주는 반드시 잘 빨아 말려야 한다. 음식물이 많이 묻은 도마도 깨끗이 닦고 건조한 뒤 사용한다. 또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를 따라 증식한 균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직접 조리를 피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섭취한다.



보관 조리한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은 따로 보관하고, 남은 음식은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버리기를 권장한다. 음식은 4℃ 이하에서 보관하고, 상하기 쉬운 음식은 실온에 두지 말고 곧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안전하다. 보관했던 음식을 다시 꺼내 먹을 때는 75℃ 이상에서 재가열한 뒤 섭취한다.



감염자 증상 주의 가족이나 지인 중 감염자가 생겼다면 감염자 토사물에 주의해야 한다. 토사물에 바이러스가 가득해 전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감염자가 구토한 자리는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물 500mL에 4% 염소표백제를 종이컵 1/5~1/3 분량 섞어 소독하면 된다. 화장실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으므로 감염자는 용변 후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한다. ㉞

드디어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이는 지금, 올바른 재테크 방향을 모색하다



지난 5년 세계 경제는 롤러코스터 같은 역대급 변화를 겪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세계적 초저금리 통화정책은 천문학적 유동성 증가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자산 가격은 매우 크게 상승했지만 2022년 본격화된 금리 인상은 자산 가격의 거품을 다시금 급격히 꺼뜨리며 자산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 엄청난 유동성 증가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미국 연준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속도감 있는 금리인상을 단행해 달러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달러로 에너지와 필수 재화를 수입해야 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물가 상승이라는 문제를 일으켰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둔화에 진입하고 실리컨밸리은행(SVB) 파산과 주요 은행의 경영 악화 문제, 그리고 기업들의 급격한 이익 감소라는 악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당초 계획보다 좀 더 빠른 금리 인상 중단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는 기대와 경기침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재테크를 해야 할까?

글 김경필 경제 칼럼니스트 겸 작가



미국의 월간 경제지표를 주목하라!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도 이와 절대로 무관할 수 없다. 최근 몇 년간은 개별 자산 종목의 변수보다는 경기 흐름에 따라 자산 가격이 영향을 받는 성향이 강해 왔기 때문에 우선 개별종목에 대해 분석하기 이전에 경제 상황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자산을 관리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매일 바뀌는 채권 금리, 환율, 주가 이외에 지금과 같이 경기 변화의 변곡점 시기에는 미국의 월간경제지표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매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발표하는 전월 기준 ISM제조업지수이다. 이 지수는 50 이상인 경우 경기 개선, 반대로 50 미만인 경우 경기가

하강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 현재 4월 발표된 3월 PMI는 46.3으로 5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 중이다. 둘째는 미국의 고용지표로 미국의 내수경제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셋째는 바로 소비자물가지수로 2022년 9.3%까지 치솟았던 물가는 최근 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목표 물가 2%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연준의 통화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이다.

미국의 월간 경제지표 세 가지 행겨 보기

- ① ISM제조업지수(매월 1~3일 발표): 한국 수출증가율과 동행
- ② 고용지표(매월 5~8일 발표): 내수경제 전망
- ③ 소비자물가(매월 10~14일 발표): 미국 연준 통화정책 방향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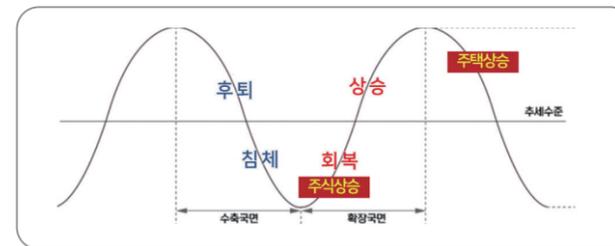
주식은 경기에 선행, 부동산은 후행 또는 동행

지금까지 언급한 미국의 월간 경제지표를 관찰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돈의 흐름이 안전자산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위험자산으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기가 상승하는지 아니면 하강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결국 경기란 순환하는데 보통은 후퇴, 침체, 회복, 상승이라는 네 단계를 반복하며 위험자산인 주식은 경기를 매우 빠르게 선행하는 성격이 있어 경기가 후퇴하고 한창 침체 중일 때 앞으로의 회복과 상승의 기대감으로 대개는 먼저 오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경기 상승이 심화되면 먼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그런 경기 흐름의 예측은 시장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반면 부동산 같은 자산은 경기에 후행 또는 동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도 당장 경기가 좋지 못하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경기순환과 재테크

- ① 경기순환 사이클: 후퇴 ▶ 침체 ▶ 회복 ▶ 상승
- ② 주식은 경기침체의 끝에서 상승(경기 선행)
- ③ 부동산은 경기 상승의 끝에서 상승(경기 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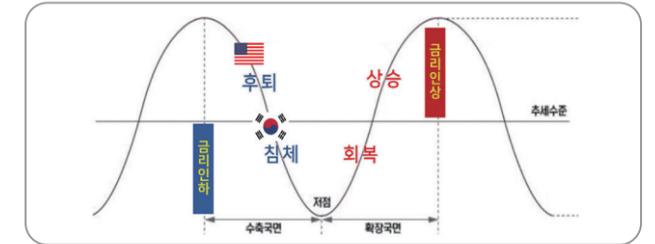
따라서 2023년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기가 어디쯤에서 저점을 지나는지 가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 한국은 1.5%로 하향하며, 지난 3개월 전 전망에 비해 매우 낮게 재조정했다. 그만큼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직접적 증거다. 경기가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지 주도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확실한 경기 개선 신호 전까지 안전자산에 머물러야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경기둔화 속도가 빨라 경기후퇴와

침체의 중간 정도에, 미국은 이제 본격적인 후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3.5%로 동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통 통화정책은 경기침체에 금리인하로 경기의 급격한 하강을 막고, 반대로 경기상승기에 금리 인상으로 과도한 경기상승을 조절한다.(그림 참조)



그런데 그동안은 경기가 상승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사용했다. 왜일까. 바로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또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에 비해 절대 수치는 높다. 따라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지금 곧바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수 없는 상황, 그야말로 통화정책의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경기침체와 고금리라는 이중 악재가 시장에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이 멈춘 것만으로도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시장이 호재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호재보다 경기둔화 속도가 얼마나 빠르면 이처럼 빨리 금리인상을 멈추는 것일까 하는 경기침체의 공포가 시장의 심리를 지배한다면 당분간 의미 있는 자산 가격의 회복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경제 현상을 해석하는 일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의 현상을 그에 끼워 맞추려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상을 보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한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까지는 경기하강 속도를 관찰하면서 여전히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잦은 경제 위기에 변동성이 커지고 아직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어디까지 나타날지 모르는 2023년은 보수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면 그전보다는 훨씬 늦게 진입하고 한 박자 빨리 빠져나오는 'Start Slowly, Finish Quickly' 전략으로 안정 지향형 재테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성한 스푼, 애정 두 스푼을 담아 만든 가정의 달에 딱 맞춘 수제 먹거리 선물

5월이 되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선물을 준비할 일도 많아집니다.

‘올해는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은 언제나 따라오죠. 간식을 건네더라도 유명 디저트 슌은 언제부터 예약해야 할까 머리가 지끈해집니다. 올해는 그런 고민은 내려놓고, 대신 직접 만든 선물로 마음을 전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부담은 덜고, 마음은 더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받는 상대에 따라 어떤 선물이 적합한지, 어떻게 포장하면 좋을지 그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글 편집실 / 사진 쿠켄

계절과 연령에 맞춰 메뉴를 정하자

선물로 건네는 메뉴는 되도록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식품 등이 좋지만, 기존에 건넰던 떡이나 케이크 같은 디저트도 보관과 포장에만 신경 쓴다면 충분히 직접 만들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추천할 만한 메뉴로는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여름이나 겨울 모든 계절에 먹기 좋은 레몬청, 딸기청, 각종 잼 등 설탕에 절인 것이나 버터와 설탕이 풍부하게 들어가는 소비기한이 비교적 긴 쿠키나 마들렌, 피낭시에 같은 구운 과자류가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건네는 것이면 생강청이나 설기류의 떡도 비교적 쉽게 도전할 수 있으면서도 선물로 전달하기에 적합한 메뉴입니다.

젊은 친구나 동료에게 건네는 것이라면 색다르게 로즈메리, 타임 등 허브 향을 입힌 허브 솔트, 최근 SNS에서 유행한 레몬딜 버터, 토마토의 감칠맛을 응축한 샌드라이 토마토도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음료도 포장에 따라서는 감동적인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로 주로 주는 음료로는 밀크티, 더치 커피, 수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선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포장법

음식 선물은 대상이 먹을 것인 만큼 포장에 더욱 주의해야 품질 변화 없이 무사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조건은 메뉴와 전달 방식, 거리 등입니다. 온라인 쇼핑

물을 이용하면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포장 용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안전하면서도 전문성이 돋보이는 포장이 가능하니 선물을 준비하기 전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잼이나 청은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 밀봉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추천하는 포장법입니다. 뚜껑을 닫은 뒤 뒤집어 보관해야 진공 상태로 만들 수 있으니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취향에 맞는 라벨이나 스티커를 붙여 메뉴명과 제조 일자까지 기록해 선물하면 나만의 개성과 정성을 더한 선물이 됩니다.

음식 용기는 보자기나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보자기나 손수건은 가정에서도 구하기 쉬울뿐더러 수수한 밀폐 용기에 담았더라도 잘 감싸 묶기만 해도 멋스럽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갖가지 매듭법을 활용하면 더욱 훌륭한 포장이 됩니다.

만약 선물로 준비한 메뉴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제품이 있다면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음식을 일회용품에 포장한 뒤 크라프트지, 컬러 노끈, 레이스 등을 주변에 둘러주지만 해도 간단하면서도 폼 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마음이 중요하지만, 잘 준비된 포장이 더해지면 그 마음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포장은 작은 디테일로도 완성도가 달라지는 만큼 메뉴와 대상에 맞게 꼼꼼하게 준비해,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 만족스러운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㉔



레몬라임청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고, 차갑거나 뜨겁게 먹어도 모두 맛있는 레몬라임청입니다. 기존에 먹던 레몬청에 라임을 더하면 색깔도 향도 푹푹함이 더해져 더욱 매력적이에요.



• 재료 레몬 6개, 라임 4개, 설탕 약 900g(레몬·라임과 동량), 굵은소금·베이킹소다 약간씩

TIP 레몬과 라임, 설탕 사이사이에 레몬, 라임즙을 짜서 넣으면 설탕이 잘 녹아요.

* 만드는 방법

① 유리병은 끓는 물에 소독해 말린다.



② 레몬과 라임은 끓는 물에 20초간 데친 후 굵은소금으로 겹질을 문질러 닦아 왁스 성분을 제거한다.



③ 베이킹소다를 사용해 한 번 더 문질러 닦은 뒤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한다.



④ 손질한 레몬과 라임을 얇게 슬라이스한다.



⑤ 소독한 유리병에 레몬과 라임, 설탕을 켜켜이 담는다. 마지막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탕을 충분히 넣고 뚜껑을 닫는다.

⑥ 이를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 보관한다.



백설기 꽃케이크

단순한 백설기에 생화를 장식하면 어느 케이크 못지않은 화려한 주인공이 됩니다. 제철 맞은 각종 생화가 어우러진 백설기 꽃케이크로 찬란한 5월을 축하해 보세요.



- 재료 습식 쌀가루 4컵(1컵=200ml), 설탕 0.6컵, 장식용 꽃, 소금·베이킹소다 약간씩

TIP 체에 곱게 내리는 과정을 통해 쌀가루에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야 완성도가 높아져요.

* 만드는 방법

- 1 촉촉한 쌀가루에 물 1/3컵을 조금씩 나눠 부으며 반죽한다.



- 2 반죽한 쌀가루를 체에 내린다.



- 3 설탕과 소금을 넣고 주걱으로 골고루 섞는다.

- 4 찜틀 모양에 맞춰 종이 포일을 끼우고 쌀가루를 살살 채운다.



- 5 뚜껑을 닫고 20분 찜 다음 불을 끄고 5분간 뜸을 들인다.

- 6 장식용 꽃은 베이킹소다에 5분 정도 담갔다 헹구고 살균 소독제를 뿌린 다음 물기를 제거한다. 줄기에 알루미늄 포일을 감아둔다.

- 7 떡이 충분히 식으면 준비한 장식용 꽃으로 장식한다.



토마토잼

이것은 잼일까, 소스일까. 조금은 낯선 메뉴지만 그 맛만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토마토에 들어 있는 리코펜은 열을 가해 조리해 먹으면 흡수율도 높아지니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보세요.



- 재료 토마토 2kg, 레몬 2개, 설탕 600g, 식초·소금 약간씩

TIP 잼을 주걱으로 들었을 때 주르륵 흐르지 않고 천천히 뚝뚝 떨어질 정도까지 졸이면 적당해요.

* 만드는 방법



- 1 토마토는 꼭지를 따고, 식초로 씻은 뒤 아래쪽에 열십자로 칼집을 내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쳤다 찬물에 헹거 껍질을 벗긴다.



- 2 손질한 토마토는 4등분한 뒤 과육과 씨 덩어리를 분리해 따로 둔다.

- 3 분리한 씨 덩어리는 체에 내려 즙을 내고, 레몬도 즙을 쥘다.

- 4 냄비에 토마토즙과 레몬즙, 설탕을 넣고 잘 섞은 뒤 토마토 과육과 소금을 넣고 중불에서 끓인다.

- 5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 가끔 저어가며 졸인다.

- 6 양이 반으로 줄어 걸쭉해질 때까지 졸이다 불에서 내린 뒤 식힌다.



- 7 완성된 잼은 끓는 물에 살균한 유리병에 담는다. 완전히 식으면 뚜껑을 닫아 냉장 보관한다.

어린이의 눈높이로 환경사랑을 실천합니다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

어린이와 함께 만드는 동물 모양 학용품

‘십진강’을 쓴 김용택 시인은 “아스팔트를 밟고 자란 아이는 시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자연은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을 길러 준다. 관찰력, 여유, 동심 등 책상에만 앉아서 얻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기후 위기 속 사라지는 자연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없다.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 역시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미래의 환경 지킴이를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쉽게 만드는 동물 모양 학용품을 통해 기후 위기 속 사라지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자.

글 편집실 / 허나리 패션 스타일리스트 / 사진 어린이환경센터

30년 남은 지구 수명을 늘리기 위해

지구의 남은 수명은 고작 30년. 관점에 따라 몇십억 년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는 지구는 2050년이면 사라진다는 우려가 압도적이다. 하지만 인류만 달라진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희망이 남아있는 지금이다.

나무를 심어 숲의 역할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의 새싹인 아이들을 향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환경재단은 이런 필요에 응답하고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아동환경권’을 위한 어린이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재단은 환경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환경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전문 공익 단체다. 이 안에 소속된 어린이환경센터(이하 센터)는 2012년 세워진 곳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건강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후 위기의 당사자이자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들이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대상이지만, 다른 세대보다 환경교육의 중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어린이환경센터는 이들이 그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캠페인, 정책 제안, 환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정부, 시민사회, 기업과 협력해 아동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는 올해로 개설 11년째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13만 명의 만 18세 미만 초·중고 학생이 이곳의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기후 위기의 현재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됐다. 센터는 정규 교과과정에 맞춰 자체 개발한 환경교육 자료를 열 가지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세 가지는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센터의 운영 규칙에는 ‘아동의 환경권 보장’이라는 큰 목표가 새겨져 있다. 조금 생소한 이 개념이 무엇인지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진 부장에게 물었다. 김 부장은 “저희가 기준 삼은 UN 아동권리협약은 기후 위기와 환경에 관한 내용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아동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 더 우선이었고, 기후변화와 환경은 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진 시점엔 중요도가 낮은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후변화는 아동의 생존과도 직결된 긴요한 문제가 된 만큼 환경적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어린이날 기념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어린이환경센터의 활동을 기반으로 기존 아동 권리에 환경적 측면에서 보장이 필요한 권리를 우선 정리해 5개 조항을 공표한 것이 아동환경권이며,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활동에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촉진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말했다.

<p>제1조 풍부한 자연환경 아동 생활권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노력해야 하며, 아동은 편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p>	<p>아동 환경권 어린이환경센터</p>	<p>제2조 아동 환경 보호 아동은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고, 기후위기를 비롯한 모든 환경문제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p>
<p>제3조 환경 교육받을 권리 아동은 생애주기에 맞춘 환경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와 학교밖 환경교육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p>	<p>제4조 환경 활동의 보장 아동은 주제적인 존재로 자유롭게 환경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한 및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p>	<p>제5조 환경적 선택의 자유 아동은 본인 의지에 따라 환경적인 요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환경정보 제공을 통해 아동의 인식과 사고의 확장을 도야야 합니다.</p>

자연을 접하며 배우는 ‘환경 감수성’

이런 목표를 토대로 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환경교육, 캠페인, 환경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환경교육은 야외에서 자연을 가까이 접하는 체험형 교육, 학교와 기관을 방문해 진행되는 실내용 환경교육으로 나뉜다. 환경캠페인으로는 아동 환경권 증진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선에서 환경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이다. 환경 지원은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가정과 학교의 환경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조성해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역시 직접 체험하는 ‘어린이 그린 리더십 과정’과 ‘기후변화 탐사대’. 환경보호에 공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환경 감수성과 소양을 길러주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이 부족하면 ‘자연결핍장애(Nature Deficit Disorder)’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현대 아이들은 생활에서 자연을 접할 일이 매우 적다. 자연결핍장애는 아이들이 자연에서 지내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해 생기는 불안과 주의산만 같은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일컫는 용어다. 그래서 센터도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연과의 접점을 늘리는 활동을 만들기 위해 궁리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에서 밀접하게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적용해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한다.

현재 준비 중인 새로운 프로그램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후 테크를 활용한 환경교육이다. 김 부장은 “과학적 탐색을 통해 기후 위기의 구체적 원인과 지속 가능한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중고등학생을 위한 그린 리더 과정입니다. 이 환경교육 또한 이머징 이슈를 적용해 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 외에도 직접적인 아동 교육 외에 필수 불가결한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우선 교구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는데, 덕분에 센터만의 독창적인 교구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김 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것과 새로운 것을 아이들은 훨씬 쉽게 받아들이고 체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에 맞춰 새로운 것을 적용한 보드 게임, 메타버스, 기후 테크 등 환경교육 커리큘럼과 교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개발한 커리큘럼과 교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활동 보조에 필요한 환경 전문 교사도 적극 양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후 행동에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못 한 청소년들의 실천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해부터 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도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장은 “글쓰기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3관’이 있는데, 이게 지구와 환경을 위해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관심’, ‘관찰’, ‘관계’입니다. 모든 이가 이렇게 지구에 관심과 관찰, 관계를 두고자 한다면 무슨 노력이든 하게 되는 듯합니다. 환경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보고, 찾아서, 좋은 사이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환경센터도 그런 노력을 더 많은 아이와 함께 앞으로도 충실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 센터의 목표를 전했다. (K)

어린이와 함께 만드는 동물 모양 학용품



소스 병으로 동물 펜 꽃이 만들기



1 높이가 각기 다른 소스 병의 윗부분을 가위로 잘라 모두 원통 모양으로 만듭니다.



2 색지는 소스 병을 감쌀 수 있는 크기로 자른 뒤 접착제를 이용해 병에 붙입니다.



3 다른 색지에 동물의 얼굴과 귀를 그려 오린 뒤 병의 윗부분에 붙이고 각각의 병을 나란히 붙이면 동물 펜 꽃이가 완성됩니다.



종이 가림막으로 동물 책갈피 만들기



1 코로나19 방역용품으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종이 가림막의 넓은 면 위에 연필로 동물의 얼굴과 몸통, 양팔을 붙여 길게 그립니다.



2 ①을 사인펜으로 진하게 다시 그린 뒤 색연필 등으로 색칠합니다.



3 모양에 맞춰 오린 후 배 부분에 칼집을 내어 그 사이로 긴 양팔을 끼워주면 나만의 책갈피가 완성됩니다.



과자 봉지로 북 커버 만들기



1 과자 봉지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자르고 가운데 봉합 부분은 떼어내어 안쪽 면이 보이도록 펼쳐 준비합니다.



2 과자 봉지 위에 다이어리를 펼쳐놓은 후 사방 2cm 정도 여유를 두고 봉지를 자릅니다. 책등의 위아래도 흠을 내듯 자릅니다.



3 다이어리 커버를 한쪽씩 펼쳐 과자 봉지를 감싸듯 접어 커버 안쪽에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하고 남은 봉지에서 잘라낸 이미지를 붙여 장식합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아이들과 함께한 재활용 품으로 활용해 동물 펜 꽃이와 책갈피, 북 커버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배워볼 수 있습니다.

쇼핑백으로 카네이션 카드 만들기



종이 쇼핑백을 잘라 카드와 같은 모양으로 반으로 접고 겉면의 색지 카드보다 작게 잘라 그 안쪽에 메모지 형태로 붙여주세요. 빨간 색종이는 핑킹 가위를 이용해 각각 다른 크기의 동그란 모양으로 자릅니다. 카드 겉면에 레이스 모양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준비한 빨간 종이를 꽃잎 모양으로 붙이세요. 여기에 초록색 리본을 붙여 마무리하면 스승의 날 감사 카드가 완성됩니다.



가정의 달 5월, 실속있고 풍성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알아두고 챙겨보면 좋은 공제회 복지서비스 모음집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모처럼 떠나는 여행, 짬을 내어 준비하는 지인들과의 모임, 미뤄 두었던 나만을 위한 건강관리 등, 몸과 마음에 힐링을 주는 것은 단비와 같은 행복이 될 것입니다. 전국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금융 혜택뿐 아니라, 시즌별로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맞춤형 복지 혜택들을 마련해서 교육 가족들이 건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인들과의 모임 및 행사가 늘고 여행과 문화공연을 즐기기에 제격인 5월, 알아두고 챙겨보면 좋은 공제회 다채로운 혜택과 제도들을 활용해 풍성하게 즐겨보시길 추천합니다. 편안한 심을 위한 직영호텔&전용 콘도, 제휴리조트&호텔, The-K 휴스테이, 문화공연부터 알차고 실속 있는 복지부조, 무료 법률&세무&노무상담, 제휴카드, 예식장, 장례식장, 레저&스포츠&교통,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The-K 마음심, 의리기관, 건강검진 통합서비스, The-K 행복서비스까지! 놓쳐서는 안 될 복지혜택과 제도들을 주제별로 모아보았습니다. ㉠

건조한 일상에 단비와 같은 여유를 누리시도록

1 숙박·문화 혜택

직영호텔 & 전용 콘도, 제휴 리조트 & 호텔



☞ 공제회 직영호텔, 전용콘도, 제휴리조트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직영호텔 | The-K설악산·지리산가족호텔, The-K호텔경주·서울,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 ▶ 전용콘도 | 한화콘도, 소노호텔&리조트(구 대명콘도) 회원권
- ▶ 제휴리조트 & 호텔 | 전국 84개 호텔 및 리조트 할인 이용

예약방법

- ▶ 직영호텔 & 제휴시설 | 본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약
※ 예약 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임을 밝히고, 숙박시 본회 회원증 또는 제휴 신용카드를 소지해야 함
- ▶ 전용콘도 | 교직원나라 '더케이몰'에서 예약 (<https://www.thekmall.co.kr> / 1661-2118)



The-K 휴스테이



☞ 여유 있는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장기숙박이 가능한 휴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 직영호텔 | 공제회 직영 출자호텔(The-K설악산가족호텔, The-K지리산가족호텔, The-K호텔경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객실지원금 |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휴양 시설에서 회원님의 장기간 힐링을 위해 객실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휴서비스 목록 및 혜택 내역은 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시설 이용 전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이용 시 본회 회원증 또는 제휴 신용카드를 소지하셔야 제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혜택 : 체류 기간에 따라 1인당 연간 20만 원까지 객실 지원금 제공, 예산 소진 시 종료	6박 7일 5만원	14박 15일 10만원	29박 30일 20만원
예약방법 : 본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예약주소 : https://ktcu.intouchtour.com			
문의전화 : 064-805-9201			



문화공연 할인 서비스



공연 : 인터파크·세종문화회관

☞ 인터파크(주)·세종문화회관과 제휴하여 공연 상시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할인내용 | 인터파크·세종문화회관 공제회 전용 홈페이지에서 공연별 최대 50% 상시 할인
- ▶ 예매문의 | 1544-1555(인터파크), 02-399-1000(세종문화회관)
※ 공제회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문화공연 > 공연 > 인터파크·세종문화회관 참조



영화 :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 영화 예매 시 할인관람 혜택과 매점 콤보 상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 ※ 공제회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문화공연 > 영화 참조
- ※ 회원에 한해 1일 1회 2매 할인 예매권 번호 제공, 로그인 후 확인 가능 (평일, 주말, 공휴일 가능)
- ※ 영화예매 할인권 3개 브랜드 통합 월 20매 발급 제한, 매점콤보 할인권 3개 브랜드 통합 월 10매 발급 제한, 할인권 번호는 발급 당일에 한하여 재확인 가능

	CGV*	MEGABOX	LOTTE CINEMA
이용대상	회원 및 동반 1인 포함	회원 및 동반 1인 포함	회원 및 동반 1인 포함
예매문의	1544-1122 (CGV 고객센터)	1544-0070 (메가박스 고객센터)	1544-8855 (롯데시네마 고객센터)
영화예매	일반관 9,000원 관람 혜택	일반관 9,000원 관람 혜택 특별관 10,000원 관람 혜택 (컴포트관)	일반관 9,000원 관람 혜택
매점콤보	3,000원 상시 할인	3,000원 상시 할인	2,000원 상시 할인
기타	일부 지점 외 일반관, 일반석 가능	일부 지점 외 이용 가능	일부 지점 외 일반관, 일반석 가능

안전하고 실속있고 편리하도록

2 금융·법률·레저스포츠·교통 혜택

법률 & 세무 & 노무 상담



☞ 서울 및 주요 대도시에서 회원 무료 법률, 세무, 노무 상담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에 한해 회원번호 제시 후, 방문·유선·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지역	합계
무료 법률 상담소	서울(3), 강원, 인천, 경기(2), 대전, 충북, 광주, 전북, 대구(2),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총 17개
무료 세무 상담소	서울(2), 인천, 경기, 대전(2), 광주(2), 대구, 부산	총 10개
무료 노무 상담소	서울, 강원, 인천, 경기,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총 8개

- ※ 회원 확인을 위해 상담 전, 회원번호, 분회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확인 후 정보 파기)
- ※ E-mail 상담 시에는 회원 확인 정보(회원번호, 분회명)와 회신받을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원활한 상담 이용을 위하여 가급적 소속 지역 상담소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상담결과는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상담 과정에서 해당 상담소에 폭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조금 & 기념품



회원님의 결혼·출산·퇴직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기념품과 축하금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부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별 상세 내용과 기념품 종류, 신청 방법 등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축하
신규가입·재가입·특별회원 기념품



결혼
축하금: 10만원



출산
첫째 둘째: 1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고구좌회원
축하금: 30만원



퇴직
기념품



20년유지회원
감사축하금: 3만원

제휴카드 서비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증 기능과 함께 폭넓은 혜택을 제공해드리는 교직원복지카드(신한,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카드 별 세부 내용 공제회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제휴카드 > 신한·하나교직원복지카드 참조

예식장, 장례식장



회원과 회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지역의 교직원공제회관에 회원 예식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원 및 가족은 예식장과 폐백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피로연 이용 시에 한함)

경기·대전·전북지역 예식장

- ▶ **이용대상** | 회원 본인, 회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 **이용방법** | 본회 회원증 또는 제휴 신용카드 소지, 회원의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이외 전국 10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항공

- ▶ **에어부산** | 회원 대상, 기존 요금 대비 5~20% 할인 적용 등
- ▶ **제주항공** | 회원 및 동반 직계가족, 실시간 운임의 일부 금액 할인 등

교통

- ▶ '기차여행 만들기' 최대 20% 할인, 쏘카 차량 대여요금 평일 60%, 주말 40% 할인 등

골프장

- ▶ 소피아그린C.C, 서산수 골프앤 리조트, 아덴힐리조트앤골프클럽, 통영 동원 로얄C.C

스파 및 레저

- ▶ 파라다이스 스파도고, 부산 아쿠아리움, 한화 아쿠아플라넷, 웨이브파크, 제주도해상케이블카 등 이용요금 할인

레저 & 스포츠 & 교통



마음과 몸 모두 건강하시도록

3 건강·의료 혜택

The-K 마음심



※ 세부내용 The-K마음심 전용 홈페이지 (www.ktcu-hue.com) 참조

의료기관



회원님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기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일상의 고민부터 다양한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까지 전문가에게 상담 및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용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 회원
- ▶ **상담방법** | 1:1 개별상담(대면·전화·화상·이메일 상담) 집단상담(6인 이내)
- ▶ **상담비용** | 개별상담 : '22~'23년 간 회원 1인당 5회 무료 상담 제공
집단상담 : '22~'23년 간 회원 1인당 4회 무료 상담 제공
- ▶ **상담시간** | 평일 9:00~21:00 토요일 9:00~16:00
- ▶ **상담분야** | 직무부문 : 교권침해, 직무스트레스, 경력개발, 양성평등 등
심리/정서 부문 : 강박, 우울, 불안, 분노, 자살충동, 가정문제 등
이외 다양한 분야의 심리상담 진행

서울대병원 등 전국 68개 병원 및 건강검진 통합서비스 전용 앱을 통해 종합검진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건강검진 통합서비스

건강검진 통합서비스 전용 앱을 통해 약 114개의 검진 기관을 할인된 금액으로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 **이용대상** | 회원 및 배우자,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 **이용방법** | 모바일을 통해 ㈜GC케어에서 제공하는 '어떠케어'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건강검진 통합서비스 이용

일상의 모든 순간이 더 행복해지도록

4 The-K 행복서비스



뮤지컬, 오페라 등 공연 및 전시 관람, 영화, 도서 증정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 누적 행사 927회, 누적 참석인원 1,310,072명)
문화행사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MOVIE
씨네&JOY 등



LIFE
북&JOY, 스포츠&JOY 등



CULTURE
아트&JOY, 문화라운지, The-K 기획콘서트 등

공제회 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더 다채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The-K 뉴스레터



The-K 매거진



카카오톡





지나온 세월 100년 축하드리며, 다가올 미래 100년을 응원합니다

아홉 번째 현장 이야기: 대구상원고등학교

1923년 4월 16일, 대구공립상업학교가 첫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16일, 대구상원고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교명은 바뀌었지만 항일투쟁의 선봉이자 야구 명문, 학생 민주운동의 출발 지점으로 대구상원고등학교가 맞은 100주년은 그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해 온, 대구광역시의 자량이자 동문의 자량인 대구상원고등학교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The-K 매거진」을 싣은 커피트럭이 달려왔습니다.

글 이경희 / 사진 이용기



역사, 전통, 야구, 민족의 얼이 담긴 곳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0년, 자그마치 한 세기를 오롯이 제자리를 지켜온 학교는 어떤 느낌일까? 대구상원고등학교로 가는 길에 품은 의문은 학교에 도착하자 과연 하는 감탄사로 바뀐다. 여느 전문 야구장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용 야구장, 한눈에도 수령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아름드리나무들, 널따란 대지와 건물들은 제각각 저마다의 세월을 품은 채 대학교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웅장함과 고풍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개교 100주년’ 기념 플래카드 역시 대구상원고의 자부심과 긍지를 대변하는 듯 사방에서 펄럭거리니 그 긴 세월에 대한 경외심이 절로 깃든다. 이렇게 좋은 날, 「The-K 매거진」에 사연을 보내 커피트럭을 초대한 주인공은 바로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박신정 조리사다. 100주년을 맞은 대구상원고에 대한 자랑, 점심시간이면 빠지지 않고 나와 학생들이며 교직원들에게 뜨끈한 국을 푸짐하게 떠주는 교장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이 듬뿍 묻어나는 사연이었다. 2023년 첫 번째 커피트럭 주인공이 된 박신정 조리사를 서둘러 만나보고 싶었지만 점심시간이 임박한 탓에 일단 그 만남을 뒤로 미뤘다. 커피트럭 오픈 시간이 다가오자 슬금슬금 교직원들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아직 시작 전이라 다들 망설이는 눈빛이 역력한 가운데, 교사 한 분이 용감하게 “지금 커피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 커피트럭 직원이 “그럼요”하고 외치자 주변에서 있던 교사들이 일제히 커피트럭으로 모여든다. “제가 해냈어요!” 첫 번째로 시원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받아 든 교사가 활짝 웃으며 뒤돌아 손을 흔드니 모여든 교사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대구상원고 교직원들의 분위기가 단번에 파악이 된다.

동문들의 지극한 모교 사랑이 빚어낸 찬란한 역사

교사들은 직군 특성상 점심시간도 업무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과 중에는 외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식후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탕비실이나 교무실에 비치된 커피믹스나 원두커피를 즐기는 게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때, 에스프레소 샷이 들어간 커피나 다양한 차 종류, 달콤하고 시원한 에이드는 오후 근무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별한 이벤트가 된다. 학생들보다 먼저 점심 식사를 마친 교직원들이 커피트럭을 에워싸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각자 원하는 음료를 받아 들고 즐거워하는 이유다. 와글와글 시끌벅적한 와중에 취재팀이 급식실을 살짝 방문해 보기로 했다. 학생들이 떠들썩하게 식판에 차례대로 점심 식사를 받는 사이로 불쑥 올라온 키 큰 남자가 보인다. 위생복을 꼭 맞게 끼입은 채 국자를 든 사람이 바로 유진권 교장이다. 이름표에 적힌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대형 국통의 밑바닥까지 잘 저어 건더기가 듬뿍 들어간 미역국을 퍼주는 손길과 눈길에는 그야말로 애정이 한가득이다.

“처음 박신정 조리사님이 커피트럭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이벤트에 당첨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교직원들과 관계가 깊은 교직원공제회에서 커피트럭을 보내준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기뻐지요. 평소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 박신정 조리사님이 이렇게 따로 개교 100주년을 축하해 주시고 챙겨주셨다고 하니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급식 시간에 국 퍼주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칭찬까지 받으니 민망하네요. 제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대구상원고 57회 졸업생이자 모교 럭비 선수 출신인 유진권 교장은 관리자이기에 앞서 누구보다 모교에 깊은 애정을



가진 동문으로서 개교 100주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던 차에 이렇게 칭감과 축하를 받는 것에 대해 연거푸 고마움을 표시했다.

“우리 학교는 역사와 전통, 민족의 얼이 살아 있는 학교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선배님들이 태극단을 조직해 항일운동을 했고, 6·25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했으며, 2·28 민주운동에도 발 벗고 나섰지요. 오랜 역사 속에서 동문들의 모교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해에 장학금만 1억 원 넘게 조성해 후배들에게 지원하고,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동문회에서 또 장학금을 주십니다. 우리 학교가 야구 명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동문회의 힘이 컸지요. 저도 이러한 끈끈한 역사를 이어 선배와 후배를 맺어주는 멘토-멘티 제도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급식실 작업이 끝난 뒤 커피트럭에 주문한 따뜻한 쌍화차를 마시면서 털어놓은 유진권 교장의 말 속에는 자부심과 긍지, 학교의 미래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 박신정 조리사가 등장했다. 이미 교직원들에게 “커피 잘 마셨다”, “고맙다”는 얘기를 연거푸 듣고 왔다는 그의 얼굴에는 봄꽃 같은 미소가 가득하다.

“The-K 매거진” 앱을 다운로드해 평소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좋은 기사도 많고, 제가 급식실에서 일하다 보니 특히 식품이나 메뉴 관련 기사를 유심히 살펴 보면서 참고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커피트럭 이벤트와 연관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딱 우리 학교가 떠오르더라고요. 웬지 이벤트에 응모하면 당첨이 될 것 같았어요. 하하.”

개교 100주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념일을 앞두고 작년부터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교감 선생님, 행정실 직원들, 선생님들까지 모두 분주한 상황에서 사연을 보내면 100% 뽑힐 것 같았다는 박신정 조리사가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올해로 대구상원고에서 근무한 지 3년 차인 박신정 조리사는 30년 근속자 못지않은 마음으로 출근을 한다고 고백한다. “이곳이 내 자리라는 느낌, 100년 역사 속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는 자체가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급식실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인 국 뜨는 일을 자청해 매일 해주시는 교장 선생님에게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늘 맛있게 급식을 먹고 잘 먹었다고 해주시는 교직원 여러분, 학생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어요. 우리 영양사 선생님과 조리실 여사님들이 고생해 주시는 덕분에 언제나 맛있는 급식이 나가는데, 이렇게 개교 100주년을 맞아 교직원공제회에서 커피트럭까지 보내주셔서 제가 작게나마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Mini Interview



“뜻밖의 커피 한잔이 준 힐링 타임” 김태정·황완숙 교사

오늘 아침에 대구상원고등학교 이현정 교감 선생님께서 유치원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학교에서 교직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커피트럭 이벤트가 열리니 꼭 와서 커피를 마시라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웃음) 말 그대로 갑자기 받은, 선물 같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방역부터 위생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는데 다행히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유치원 상황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더 여유 있게 뜻밖의 커피 타임을 즐길 수 있어 아주 행복했어요. 예전에는 원아들과 함께 대구상원고등학교 길을 같이 산책도 하곤 했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종종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상원고등학교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맛있는 커피도 잘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100년을 넘어 1000년까지” 박기영·김태형 교사

커피트럭이 온다는 이야기는 학교 메신저를 통해 들었습니다. 박신정 조리사님께서 「The-K 매거진」에 사연을 보낸 덕분에 교직원공제회에서 커피트럭을 보내주신다는 소식이었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사들은 물론, 급식실 직원분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비로소 예전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을까요? 점심 식사 후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선생님들과 대화도 하고 휴식을 취하니깐 여유롭고 좋습니다. 저희 대구상원고등학교는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아름다운 캠퍼스는 전문대학 못지않고, 또 개교 100주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지요. 무엇보다 수많은 동문이 학교와 후배들을 적극 지원해 주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라지는 학교가 많다는 암울한 소식 속에서 대구상원고등학교의 100주년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 역사가 천년만년 이어지길 바랍니다. 박신정 조리사님, 커피 잘 마셨습니다!

“100주년 맛이 감동의 커피 한잔” 윤여진·이영미 교사

우리 학교 개교 100주년을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학교 급식이 맛있기로 소문이나 있거든요. 맛은 물론 영양소까지 전부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때문에 늘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박신정 조리사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 커피까지 선물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학교는 식사 때마다 교장 선생님이 국을 떠주시는데, 저희는 처음에 일회성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외부 일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국을 떠주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감동했습니다. 개교 100주년이라는 큰 행사를 맞아 선생님들 모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잠시나마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대구상원고등학교 교직원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한국교직원공제회 목돈·퇴직생활급여 및 법인예탁급여 급여율 조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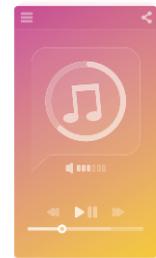
2023년 5월 1일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 목돈·퇴직생활급여(확정연금형 제외) 및 법인예탁급여 급여율이 4.80%에서 4.20%로 조정된다. 퇴직생활급여 중에서는 부가금형 및 적립형만 급여율이 변동된다. 목돈급여는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재직회원이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 퇴직생활급여는 퇴직회원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외에도 노후 자금을 높은 이율로 운용할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 제도다. 한편 법인예탁급여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위한 법인회원 전용 상품으로 「사립학교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공제회원 1천 명에 인기 워터파크 이용권 증정 1차 스포츠&JOY, 5월 4일 ~ 14일까지 응모

다가오는 여름, 공제회원들이 더위를 잊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기 바라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인기 워터파크 이용권을 증정하는 2023년 제1차 스포츠&JOY 행사를 진행한다.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 가능하며, 응모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회원 1천 명에게 인기 워터파크 이용권(1인 2매)을 증정한다. 전국의 9개 워터파크 중 원하는 1곳을 선택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은 5월 4일부터 14일까지, 당첨 발표일은 5월 22일이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사 시작일 이후 공제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 The-K행복서비스 > 도서/여가 > 스포츠&JOY 참조

구분	워터파크명 (지역)
오션월드	오션월드 (강원도 홍천)
오션어드벤처	소노벨 천안 (충청남도 천안), 소노캠 거제 (경상남도 거제)
오션플레이	소노캠 델피노 (강원도 고성), 쏘비치 양양 (강원도 양양), 쏘비치 삼척 (강원도 삼척), 소노문 단양 (충청북도 단양), 소노벨 변산 (전라북도 부안), 소노벨 경주 (경상북도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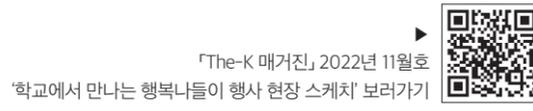
6천 5백 명 공제회원에게 음악 스트리밍 이용권 증정 2023년 제1차 The-K 온라인 이벤트, 5월 22일 ~ 31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제회원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 스트리밍 이용권을 증정하는 제1차 The-K 온라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당첨된 6천 5백 명의 회원에게 3개월 무제한 음악 스트리밍 모바일 이용권을 증정한다. 당첨 발표일은 6월 8일이며,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사 시작일 이후 공제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 The-K행복서비스 > 도서/여가 > 온라인 증정 행사 참조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외 지역 학교로 찾아갑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행복나들이, 5월 11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국 20개 도서벽지 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학교에서 만나는 행복나들이’ 행사를 진행한다. ‘학교에서 만나는 행복나들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도서·산간벽지를 비롯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학교로 직접 찾아가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위해 악기 연주, 댄스, 마술쇼 등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총 20개의 학교에서 진행되었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7가지 공연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다. 당첨자에게는 5월 중 개별 연락을 통해 관람 장소, 일정 등을 협의 조율할 예정이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 The-K행복서비스 > 지역행사 > 함께하는 행복나들이 참조



구분	공연형태
구니스크루	비보잉&일렉바이올린 공연
제니스	혼성 아카펠라 공연
퍼니밴드	금관5중주&드럼 공연
청명	타악&댄스 콜라보 공연
빅타이드 치어리딩	스탠트 치어리딩&체험
벌룬맨 박민욱	풍선아트&버블쇼
매지션 장현우	마술&버블쇼

‘기금운용 파트너스 데이’ 개최, 기금운용 부문 우수 협력기관 8개 파트너사 선정 및 감사패 전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여의도 본사 The-K 타워에서 ‘기금운용 파트너스 데이’를 지난 4월 24일 개최했다. 파트너스 데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 성과 증대에 기여한 우수 파트너사를 초청하여 서로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도모하기 위한 공식 행사다. 공제회는 성과평가협의회를 통해 운용실적 등의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2022년 기금운용 파트너를 최종 결정했다. 2022년 기금운용 파트너로는 금융투자부문 3개사(키움증권, NH투자증권, 베어링자산운용), 기업금융부문 2개사(크레센도 에퀴티파트너스, 스태프톤), 대체투자부문 3개사(미래에셋자산운용, 파인트리자산운용, 마스틴투자운용) 등 총 8개사가 선정됐다. 코로나19 상황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2022년 기준 기금운용 수익 1조 461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은 “우리 공제회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파트너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지역 소상공인 상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4월 5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인천산업진흥협회와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는 S2B에서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제품구매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기관에 S2B를 활용한 지역 업체 물품 우선 구매안내를 독려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산업진흥협회는 인천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S2B 등록안내와 가입홍보를 추진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은 “S2B를 통해 지역 업체 물품이 우선적으로 판매되어 인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판로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인천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S2B의 이용활성화와 교육 조달시장 확대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13개의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방계약원가협회와 S2B의 원가분석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 3월 27일 (사)지방계약원가협회와 지정정보처리장치 S2B의 원가분석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계약 관련 원가계산 전문협회를 통해 S2B에서 양질의 원가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S2B 수요기관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 협회 회원사의 판로를 확대하여 S2B 이용활성화를 향상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지방계약원가협회는 회원사 대상 S2B 이용안내와 지자체 및 공급업체 대상 S2B 홍보 등을 지원하고, 공제회는 협회 회원사 및 수요기관 대상 S2B 이용안내·교육 등을 위한 강사와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목 S2B 사업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원가분석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S2B의 이용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릉 산불 긴급구호성금 1억 원 기부

지난 4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복구를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공제회 기부금과 함께 임직원의 급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 결성한 ‘노동조합 러브펀드’가 포함되어 의미를 더했다. 공제회는 지난해에도 강원도 및 경상북도 지역 산불 피해복구 성금 기부, 혹서기 재난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올해 2월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복구 성금을 후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 및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의미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은 “산불로 소실된 산림 복구와 피해 지역 이재민분들의 일상회복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예기치 못한 피해로 고통을 받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The-K호텔서울

가정의 달 5월, 도심 속 야외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프로모션



가정의 달 5월, 문화와 예술,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도심 속 숲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The-K호텔서울이 공제회원 **객실 특가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해당 객실은 디럭스 트윈이며, 회원 특별가로 주중(일~목)은 9만9천 원, 주말(금~토)은 11만9천 원, 연휴가 있는 성수기에는 13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성수기: 5월 4~6일, 5월 26~27일, 6월 2~5일)

한편 레스토랑 우첼로에서는 60여 가지의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디너 세미 뷔페**도 진행한다. 갈비찜, 간소새우, 닭강정, 덤섬, 훈제연어, 토마토 카프레제, 연어 샐러드 등의 뷔페 인기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고루 맛볼 수 있으며, 뷔페 이용 고객은 생맥주를 5천 원에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우첼로 디너 세미 뷔페는 수~일요일 18시~21시까지 운영하며, 성인 4만3천 원, 소인 2만7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공제회원은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봄나들이를 겸해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넓은 정원 우첼로가든에서 여유로운 식사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우첼로가든 바비큐 프로모션**도 계속 진행된다. 직접 구워 먹는 셀프 바비큐로, 양갈비 1kg 12만 원, LA갈비 600g 10만 원, 소고기 모듬·안심·등심·갈빗살·부챗살 구이가 600g 기준 9만 원, 돼지고기 모듬·삼겹살·목살·갈매기살 구이가 600g 기준 7만 원이다. 스페셜 메뉴로는 소시지·왕새우구이를 2만5천 원에 즐길 수 있으며, 식사를 이용하면 샐러드바가 무료로 제공된다. 바비큐 운영 시간은 매주 목·금요일 18시~21시까지, 토·일요일은 점심 12시~15시까지와 저녁 18시~21시까지이다. 모든 식사는 1일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공제회원은 식음료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봄날을 맞아 서초문화예술공원, 양재시민의 숲과 양재천 등 도심 속 숲과 공원이 조성된 The-K호텔서울에서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누리며 행복한 5월의 추억을 쌓아보는 것도 좋겠다. 더 자세한 내용은 The-K호텔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2-571-8100(The-K호텔서울)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Art In The Hotel-삶을 기록하다’ 기획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공제회원들을 포함한 투숙객을 위해 아트 갤러리 ‘Art In The Hotel-삶을 기록하다’를 개최해 국내외 작가들을 특별 초대, 호텔 로비에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호텔의 곳곳에서 만나는 또 다른 감동”이란 슬로건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아트 갤러리는 방문객 대상 예술 콘텐츠 진흥 행사의 일환으로, 현재 세 번째 전시인 ‘유럽 3인 전’이 진행 중이다. ‘Utopia’를 주제로, 스페인,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신예 작가 3인들의 이색적이고 감각적인 그림들이 2000년 작부터 2022년 최신작까지 전시되고 있다. 유럽 여행을 온 듯 한 느낌이 드는 풍경화, 개성 있는 소재를 유쾌하게 풀어낸 콜라주화, 기발한 상상력에 표현력까지 더해진 아크릴화까지 각국의 정서와 문화, 자연을 조화롭게 또는 유니크하게 표현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제주 여행 중에 또 다른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더불어 **미술과 여행의 기록을 간직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삶에 대한 시선을 기록한다는 의미로, 원화 그림엽서를 제작하고 편지를 적어 호텔 내에 비치된 우체통에 넣으면 집으로 발송해주어 여행 이후에도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다. 또한, 갤러리 옆쪽 공간에는 보다 알찬 여행을 위한 미국적인 도서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자유롭게 대여 및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의 봄이 연상되는 컬러들을 컨셉으로 **‘드로우 유어 스프링 패키지’**를 출시하여 공제회원들이 제주 여행 목적과 동반인에 따라 최적의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트 갤러리 관련 상세 정보 및 예약문의는 호텔 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064-729-8100(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The-K호텔경주

가정의 달 기념, 2023년 패밀리 데이즈 패키지



The-K호텔경주는 공제회원들의 웃음꽃이 피는 화목한 가정의 달 5월이 되기를 바라며, 공제회원을 위한 **2023년 패밀리 데이즈 패키지**를 진행한다. 스탠다드 객실 1실, 조식 2인 구성이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회원 할인가로 주중 11만6천 원부터 이용 가능하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해당 패키지를 이용하는 어린이 동반 가족은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토요디너뷔페**를 성인 4만 원, 어린이 2만5천 원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호텔 투숙 고객이 디너뷔페 사전 예약 시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5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한편 가족들과 함께 이용하기 더 좋은 The-K호텔경주의 **천연온천사우나**는 천연나트륨, 염소, 유황성분이 함유된 수소이온 농도 9.12pH의 천연 알칼리성 온천으로, 지하 630m에서 용출되는 100% 순수온천수가 피부 혈행 개선, 류머티즘, 신경통, 창상요통, 피부병 및 외상 후유증, 피부미용 등에 효험이 있다. 또한 메타세콰이어와 소나무 숲속에 위치하여 피톤치드가 풍부한 노천온천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의 및 예약은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054-745-8100(The-K호텔경주)

The-K지리산가족호텔

지리산 철쭉 보러 5래5 이벤트



전국에서 손꼽히는 철쭉 군락지인 지리산 아래봉은 5월의 아름다운 지리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행지다. 화사한 분홍 꽃길 사이를 걸으며 기분 좋은 산행을 즐길 수 있고, 여름이 오기 전 파릇한 초목까지 어우러져 완벽한 봄 풍경도 만끽할 수 있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공제회원들이 지리산 아래봉에서 마치 동화 속 꽃동산에 들어온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지리산 철쭉 보러 5래5 이벤트**를 준비했다. 지리산 아래봉 입구를 배경으로 인증 사진 1장, 지리산 아래봉 정상을 배경으로 인증사진 1장, 총 2장을 찍어 호텔 공식 이메일(jirisan8100@naver.com)로 보내면 호텔 온천사우나 2인 1회 이용권 또는 호텔 커피숍 2인 1회 이용권 중 선택한 한 가지를 제공한다. 이벤트는 5월 투숙 고객에 한해 한 달간 진행하며, 인증사진은 체크인 및 체크아웃 날짜를 기준으로 객실 1실당 1인, 개인 방문일 경우에 한하여, 본인 사용 시에만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The-K지리산가족호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61-783-8100(The-K지리산가족호텔)

The-K교직원나라

공제회원 대상 숙박요금 할인 쿠폰 지급 이벤트



The-K교직원나라는 공제회원을 위해 5월 한 달 간 **숙박요금 할인 쿠폰 지급 이벤트**를 실시한다. 교직원 전용 복지포털 ‘더케이몰’ 내 실시간 숙박 검색/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더케이몰에서 5만 원 이상 국내 숙박시설 예약·결제 시 선착순 2만5천 명에 2만 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The-K교직원나라의 더케이몰 실시간 숙박 검색/예약 서비스는 전국 총 1만8천여 개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제회원은 호텔 및 리조트뿐만 아니라 풀빌라, 펜션, 캠핑장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회원 특별가로 이용할 수 있다. 숙박 예약 시 숙박일은 예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 가능하며, 추후 숙박 예약 서비스 이용 회원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The-K교직원나라 더케이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숙박요금 할인 쿠폰 지급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1661-2118, ARS 3번 (The-K교직원나라 더케이몰)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

2023년 나에게 딱 맞고 꼭 필요한 보험 선택 가이드 제2편



교육가족의 든든한 노후와 행복한 미래를 위한 국내 유일 교직원 맞춤형 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입니다. 지난 4월호에서는 나에게 딱 맞는 보험 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5월호에서는 보험계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보험용어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회원님들도, 현재 유지 중인 보험계약 내용이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도 참고하시어 하나쯤 꼭 필요한 보험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K)

① 보험상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주급여 보험 가입 시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보험 계약 항목

+

특약 부가적인 보험 계약 항목 필요하거나 부족한 보장을 추가로 선택

특약에는 아래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① 의무특약 : 주보험(주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특약
- ② 선택특약 : 계약자의 필요에 의해 선택 가능한 특약
- ③ 제도성 특약 : 별도 보험료 추가 없이 가입 가능한 특약

②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갱신형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새롭게 변경 가입 초기 보험료 저렴

비갱신형

납입기간 중 보험료 변동 없음

자신의 나이, 상황 등에 따라 갱신형, 비갱신형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③ 나의 보험 나이는 몇 살인가요?

올해 생일 → +6개월 → 보험 상령일 → +6개월 → 내년 생일

보험 나이 N살 → 보험 나이 N+1살

보험 나이가 오르는 날짜가 오기 전, 즉 상령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을 위한 적절한 방법입니다.

④ 보험계약 관계자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급여자 (피보험자)

보험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 (보험수익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⑤ 보험 계약 시 어떤 서류를 받게 되나요?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한 가입자(계약자)와 보험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 조항

보험증권

보험사가 보험자에게 교부하는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

가입신청서 (보험청약서)부분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

가입신청서(보험청약서)부분의 경우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계약사항과 계약 관계자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병력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⑥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수익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는 기간

납입기간

보험 계약을 맺은 후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이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교직원 맞춤형 생명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라이프 보험상품이 궁금하신 회원님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 상단 보험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보험료 계산 및 가입상담 신청도 가능하며, 약관 및 상품설명 브로슈어 등 자세한 자료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직1Life

우리의 온리원은 교직원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이렇게 만나세요!

홈페이지 '재정전문위원 찾기' 거주지역과 가까운 최고의 보험 전문위원에게 맞춤형 상품을 직접 추천받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 상품별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상품을 선택하고,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간편하게 '전화 문의하기' 보험가입 상담 1577-3993

The-K 퀴즈

이번호 「The-K 매거진」을 잘 읽으셨나요? 아래의 OX 퀴즈의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5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OX퀴즈 바로가기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응모 기간 : 2023. 5. 1. ~ 5. 31.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7. 1. 이후



4월호 퀴즈 정답

QUIZ 1. O
QUIZ 2. X
QUIZ 3. O



매월호 퀴즈 및 회원 의견 선정자는 웹진 (www.thekmagazine.co.kr) 혹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코딱지들의 영원한 선생님 김영만 교수가 아이들에게 꾸준히 가르쳐온 미술 분야는 '그림 그리기'다 (p.14~17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참조)



2 소파 방정환 선생이 창설한 이래 '민족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달려있다'는 신념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의 이름은 '색동회'다. (p.18~21 「역사 속 숨은 영웅」 참조)



3 공제회 직원 출자호텔에서 장기숙박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제휴 휴양시설에서 장기간 머물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객실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명칭은 The-K 휴스테이다. (p.64~67 「The-K Focus」 참조)



귀 기울여 소통하고 함께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지난 3월호를 읽고 보내주신 800명 회원님들의 의견 중 더 많은 회원님과 공감하며 나누고 싶은 의견을 소개합니다.

3월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만큼 교육 가족들에게는 더 바쁘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제회 회원님들이 'The-K 매거진'을 읽는 순간만큼은 힐링의 시간이 되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학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리상담 칼럼들과 함께 '기후와 식량 위기'라는 큰 주제 아래 농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회원님들의 인생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번아웃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 다룬 마음심 코너가 큰 도움이 되었고, 아프리카에서 농업연구에 일생을 바치신 한상기 박사님과 농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강대구 교수님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주시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거나 주변에 적극 추천하고 있다는 말씀에 감사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The-K 매거진'은 계속해서 회원님들의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을 응원하면서 힘들고 바쁜 시기일수록 곁에 두면 더욱 든든한 매거진이 되도록 변함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매년 3월이 되면 교사는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학기 초 학교는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그 와중에서도 'The-K 매거진'은 항상 챙겨 봅니다. 힘든 시기 위료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의 장이 되니 참 좋습니다.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조언해 주는 글과 다양한 교육계 소식을 읽으면 그래도 더 힘을 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거의 총망라한 'The-K 매거진'은 굉장히 수준 높은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읽기도 좋고 접근성도 뛰어나 매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도전하는 경품 행사도 좋고,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다음 호가 기대되는 'The-K 매거진'을 기다립니다.

강*우 회원 여산고등학교

오늘 개학식 후 'The-K 매거진'을 보며 업무 전 한숨 돌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저는 '행복 굽하기'와 '배움 더하기'에서 다양한 인물을 소개해 주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꿈을 위해 나아가는 분들을 보고 동기를 얻기도 하고, 남들을 위해 헌신이 베푸는 분들을 보고 제 삶을 반성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노력합니다. 또 '행복 굽하기'에서 여러 생활 정보를 받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전남 광양 매화마을이 소개되었는데, 사진을 보고 힐링을 하고 가족여행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사로운 봄이 다가오는데, 방방곡곡 숨은 명소를 또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정 회원 서울금복초등학교

3월호에 실린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코너의 코넬대학교 명예교수인 한상기 박사님에 관한 글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The-K 매거진'을 매월 빠지지 않고 구독해 왔지만 이렇게 회원 의견란에 글을 남기는 것이 처음으로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된 글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를 포기하고 황폐한 땅과 굶주린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량 안전에 기여하고 국위 선양을 위해 휴직계를 내고 머나먼 땅으로 향한 한상기 박사님의 결단과 실천에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제회 회원들이 교육가족으로서 함께 공감하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경 회원 부산대학교

재활용 기업에 대한 영상을 보며 아이들과 참체 시간 재활용품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 활동을 시도해 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들어진 기사와 영상이 많은 사람에게 와닿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거진 홈페이지에 들어와 둘러보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울산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또는 가깝게 느껴지는 내용을 읽으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니 더 즐겁기도 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친밀한 주제로 다가와 주세요.

장*리 회원 울산경의고등학교

'The-K 매거진' 한 코너 한 코너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귀한 정보와 다양한 소식들로 채워져 있어서 제작, 편집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느껴져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OX 퀴즈 코너는 퀴즈를 풀면서 아이처럼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기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교육의 실천에 앞장서신 한상기 박사님의 일생, 사랑을 심은 자리에는 더 큰 사랑이 난다는 말은 교육의 현장에 있는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고, 박사님께서 걸어오신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본받아 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 코너를 꼼꼼히 살펴보고 또 좋은 내용을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 회원 계림고등학교

3월호에서는 '마음심' 코너에서 '번아웃 예방과 관리' 기사를 읽으며 지난주 나의 상태와 비교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잠을 설쳤을 때도 마음이 보내던 신호를 미처 감지하지 못했는데, 이 글을 읽으며 내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고 마음을 챙겨 가며 업무를 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마음부터 잘 챙겨야 우리 아이들과 함께 1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쉬어가고 돌아가는 지혜를 발휘해 보겠습니다.

김*은 회원 前 수영초등학교

요즘 명예퇴직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한다면 인생 제2막을 어떤 방향으로 열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인생 이모작' 코너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앞서 퇴직하시고 퇴직 후의 인생을 즐기고 계시는 모습을 참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 코너를 눈여겨보고 저와 맞는 방향성을 찾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너를 만들어주시고 발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 회원 매지초등학교

학교는 3월에 또다시 새해를 맞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3월달에 'The-K 매거진'에도 새로운 글들이 움트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농업 및 생태교육과 같이 봄에 어울리는 산뜻한 글과 꽃이 피는 광양의 매화마을을 소개하는 글은 모두의 맘을 설레게 합니다. 방학을 지내고 돌아온 교사들을 단단히 준비시키는 번아웃에 대한 글이 참 인상깊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한 글이 유익해 다음 호에도 계절성 질병에 관련된 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교로 이동해 들뜨면서 불안한 마음을 'The-K 매거진'이 알아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한 봄 되세요.

양*연 회원 충북 비봉초등학교

오랜만의 여유로 표지부터 꼼꼼히 한 장 한 장 넘기며 매거진을 정독하니 공제회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복지 혜택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3월호의 '똑똑! 트렌드 경제'와 '장기저축 급여로 시작하는 똑똑한 미래 설계' 덕분에 제 미래 설계도 중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요즘 끝없이 치솟는 물가와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로 저축 증자가 막막했는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소비 디톡스' 매달 매달, 아니 매일매일 꼭 실천해 보려고요~!!

문*윤 회원 녹양유치원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땅을 일궈 수확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시사철 까맣게 그을린 피부와 없어지지 않는 손톱 밑 까만 물을 보면 얼핏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년에 서너 번 잠깐 수확철에 감 따러, 고구마랑 땅콩 캐러 가는 것 말고는 별로 거들지도 않는데 어쩌다 가서 농사일을 돕는 그 하루가 얼마나 고된 노동이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왜 중요하고 위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말씀하시곤 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왔듯이 환절기와 새 학기의 번아웃과 무기력 같은 두려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으로도 연결되는 것 같아 기사의 구성에 다시 감동을 느끼고 갑니다. 다양한 주제로 즐거움과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 밥상은 부모님의 농사로 풍성해지고 'The-K 매거진'의 소중하고 알찬 읽을거리에 감사까지 풍부해지는 봄날이 시작되었네요.

조*빈 회원 전남대학교병원

매달 실레는 마음으로 놀러보는 매거진이지만, 3월호는 새 학기가 시작된 달이니만큼 더욱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제회 회원들에 대한 혜택을 알짜배기로 모아 소개해 주는 '언제나 더케이' 코너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문화 라운지 초청 행사가 드디어 게재되어 신나게 응모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 호에서 소개된 'The-K 교직원나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처음 알게 되어 신선했습니다. 공제회의 출자회사가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S2B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어 무척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공제회의 정보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설명까지 실려 있는 콘텐츠는 읽고 나서 더욱 유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권*지 회원 강원대학교

3월호도 정말 유익하고 재밌어서 꼼꼼히 챙겨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 있었던 코너는 '행복 굽하기'의 '마음심' 코너입니다.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글을 읽는 내내 제 상태를 돌이켜볼 수 있었고 위로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개선할 방법을 찾는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이며, 이러한 특성은 칭찬할 만하지만 완벽주의로 인해 휴식과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구절에서 공감했습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게 높은 기대와 성취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글 하단에 번아웃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직접 실천이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집에서 그냥 무료하게 쉬기만 했는데 이번 주부터 일과 사생활의 경계를 짓고, 취미나 운동을 찾아 다른 방면에서 스트레스를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대학생 때 배운 에릭슨의 이론도 오랜만에 보아 반가웠고, 유익한 정보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매거진을 접하기 어려운 교직원들에게 매달 1일 이메일로 전해오는 'The-K 매거진',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3월호는 공제회 급여율이 상향 조정되는 반가운 소식과 문화 라운지 초청 행사 이벤트 등 회원 복지 이벤트가 먼저 눈에 오는 기사였습니다.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구호 성금 기부 소식도 알 수 있어 회원으로서 뿌듯했습니다. '방방곡곡 숨은 명소' 기사는 봄나들이 명소 소개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미래 우리 먹거리' 등 농업에 대한 특집 기사는 학교 현장에서도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건강, 경제,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는 교직원의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방면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사와 이벤트 부탁드립니다.

'귀 기울여 소통하고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마음에 와닿네요. 보통 의견 수렴만 하고, 'The-K 매거진'처럼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지 않는데 수렴한 의견을 회원들에게 소개해 주는 매거진이 라니요. '회원 의견 보러 가기'는 정말 'The-K 매거진' 제작자들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일방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아닌 진정한 소통 프로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하면 좋을 기획입니다.

이*나 회원 영진전문대학교

'The-K 매거진' 3월호에서는 장기저축급여의 장점에 대해 많이 알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솔직히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매달 장기저축급여에 넣고 있었지만 보장성, 세금, 복리 등 혜택에 대해 정확하게는 몰라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걱정을 이변 기사를 통해 시원하게 털어버릴 수 있었고, 장기저축급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혜택과 함께 발전하는 교직원공제회가 되길 응원합니다.

박*정 회원 제주중앙중학교

저는 공제회 회원인데 'The-K 매거진'과 이벤트의 품질에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이벤트도 최고 수준이며, 항상 잘 조직되고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콘텐츠와 회원들이 서로 연결하고 교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확장된 이벤트를 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원 자격에 매우 만족하며 고품질의 매력적인 간행물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강력히 추천할 것입니다.

최*건 회원 인하대학교병원

박*현 회원 중앙대학교광명병원

박*정 회원 서울청파초등학교

「The-K 매거진」을 읽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회원 의견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똑같은 기사를 보고도 느끼지 못했던 내용과 편집자들의 세심한 배려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이 운영 계획과 예산안 심의 등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니 더욱 안심이 되고 신뢰가 됩니다. 며칠 전 The-K지리 산가족호텔에 묵으며 산수유마을과 추천 명소 광양 매화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공제회 회원은 그 어떤 평명 회원권보다도 더 큰 평생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듭니다. 더케이 호텔은 수시로 이용하는데, 이벤트 행사까지 진행하니 이 또한 더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회원들의 다양한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더케이가 있어 든든합니다.

이*갑 회원 前 인천 계양중학교

어쩔 이라도 제 맘과 똑같은 기사가 있는지, 제목부터 심상치 않네요. '새 학기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온 3월' 와~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줄 알았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아직은 낯설지만 진짜 번아웃이 오지 않기 위해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주말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보내볼 생각입니다. 주말이 되어서도 학교 일에 대한 고민으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뭐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다 월요일을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쉬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책을 읽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 충전을 제대로 한 후에 맞이하는 월요일은 또 다른 기운이 넘칠 것 같네요.

이*희 회원 복현중학교

학교 임용이 된 후, 사실 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처음 임용된 해부터 6년 동안은 6만 원씩 넣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홍보 게시물을 보고 장기저축급여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복리 상품이라는 사실이 제일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제해 넣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제도의 장점을 소개하는데, 「The-K 매거진」 3월호의 「The-K Focus」 기사에서도 자세히 장기저축급여 제도에 다루고 있어 반가웠습니다. 아직 퇴직이 많이 남아 있지만, 꾸준히 이 상품을 활용해 똑똑한 미래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장기저축급여는 교직원공제회의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서*혜 회원 전주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월호는 농업과 관련된 주제로 큰 틀이 짜여 있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코넬대학교 한상기 박사님의 인터뷰와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과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것. 교사로서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글이었고, 본받을 게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잡(job)자'에서는 정밀농업 전문가라는 직업을 소개해 주셨는데 최신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는 정밀농업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진로 시간에 아이들에게 꼭 소개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직원 복지 포털 서비스 「The-K 교직원나라」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박*빈 회원 부산 수영초등학교

국내 관광지를 소개하는 '방방곡곡 숨은 명소'를 보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시간을 내어 찾게 되곤 합니다. 「The-K 예방의학」과 「건강한 집밥」 요리 코너는 일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매거진을 접할 시간이 없는 교직원들에게 대체로 정보를 매달 제공해 주는 「The-K 매거진」 매달 1일 손꼽아 기다립니다. 각종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재미와 당첨 기회는 회원들에게 소중한 행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저축급여에 대한 안내와 유익한 경제 기사는 회원들의 경제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아 회원 서울언남초등학교

한 달의 시작을 함께해 주는 길잡이 같은 「The-K 매거진」, 매달 어떤 새로운 이야기와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늘 기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3월호에서 만난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인생 이모작」에서 퇴직 후 자신의 새로운 꿈을 펼치고 계시는 마술사 노상원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몸소 보여주시는 선생님을 보며 「참 멋지다」,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막연하게 두렵지만 한 「퇴직」을 새로운 길의 시작으로 생각하며 늘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은 회원 나주다시중학교

3월호 「The-K 매거진」에서 보자마자 이견 따라 해보아야 싶었던 코너가 「건강한 집밥」 기사였습니다. 연령대별 추천 곡물류와 각 곡물의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읽는 동안 건강 상식이 풍족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30대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는 아몬드와 브라질너트, 피스타치오가 좋다고 되어 있던데 견과 믹스를 만들어서 교무실에 가져다놓고 간식 대신 먹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눈길을 끈 건 「The-K 예방의학」 기사에 나와 있는 안약을 차갑게 해서 점안한다는 내용은 전에 몰랐던 부분이라 앞으로 인공눈물을 차갑게 보관해서 넣어볼까 합니다. 항상 좋은 코너, 기사, 복지 서비스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 회원 안동여자중학교

3월호 역시 알찬 기사가 많았습니다. 「꿈 너머 꿈」에서 「아꿈선 연구회」의 피나는 노력과 선한 영향력에 물들어 봅니다. 「방방곡곡 숨은 명소」를 미리 읽고 3월 초순, 봄 추위 속에 가장 먼저 피어나는 섬진강 변에 구름처럼 핀 매화 향에 이끌려 전남 광양 매화마을을 다녀온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The-K 매거진」을 읽은 덕분에 앞으로 유익한 정보와 인문학 지식을 내 것으로 체화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읽겠습니다. 「생각 나누기」의 「봄 개울」 시처럼 개울물과 삼라만상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버들개지도 제 얼굴을 비추고, 언제나 우리 회원(독자)들에게 희망과 힘을 심어주는 「The-K 매거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웅 회원 前 청주 경덕초등학교

먼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새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먹거리, 지금은 너무나 흔해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The-K 매거진」 3월호에서는 세계적인 식물육종 학자로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주식인 카사바의 우수 품종을 개발하고 농업교육을 펼쳐 영웅으로 추대된 한상기 박사님에 대해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꿈 너머 꿈」에서는 소외된 농어촌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없애기 위해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며 학생들을 교육하는 「아꿈선 연구회」의 조민호 선생님과 광남지 선생님의 교육철학을 만나게 되어 저도 안주해 있지 않고 조금은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교사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 학기 바쁜 시기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선생님에게 힘이 되어주는 「The-K 매거진」, 항상 감사합니다.

손*지 회원 경북대부설고등학교

3월호에는 생명이 싹트는 봄인 만큼 자연, 환경, 생태 관련 내용이 많아 좋았습니다. 4차 산업 시대, 과학 기술 등이 주목받는 가운데 자연과 생태, 농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움직임 또한 반가웠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고 농업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배움 더하기」 코너의 텃밭 교육을 보니 농업을 통해 생명 존중의 태도와 희망과 사랑, 성취의 경험을 배울 수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커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The-K 매거진」을 보면서 환경문제에도 더욱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분리배출, 재활용 등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깨달음을 주는 「The-K 매거진」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경 회원 초곡초등학교

바벨 때는 학교 업무로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는 들어가지 않는데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니까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카사바 같은 익숙하지 않은 작물임에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한상기 박사님의 이야기를 보며 세상에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잘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사회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지면을 채워주시는 「The-K 매거진」을 선생님들이 더 많이 구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기 초라 바쁘고 학생들 가르치고 돌보시느라 힘드신 선생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정*임 회원 경기예술고등학교

「The-K 매거진」 3월호에서 가장 눈길이 갔던 부분은 「농업」을 주제로 한 기사가 많다는 점이었어요. 표지에 실린 사진만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던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코너의 한상기 박사님 인터뷰 기사를 시작으로, 「역사 속 숨은 영웅」 코너에 실린 우리나라 농업교육의 선구자 조백현 선생 기사, 「오늘의 학교 코너」에 소개된 농업의 미래 관련 기사,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코너의 학교 텃밭을 통한 생태교육 관련 기사 등 농업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읽으며 여러 관점과 시각으로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참 유익했습니다. 6학년 실과 시간에 「농업」을 주제로 한 단원이 있어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The-K 매거진」 3월호에 실린 기사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기 회원 양도초등학교

항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님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주는 「The-K 매거진」, 이번 3월호에서도 「방방곡곡 숨은 명소」를 자세히 소개해 주어서 메모를 해두었네요. 주말이나 혹은 방학일 때 한 번 여행을 가보고서 추억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네요. 한편으로는 늘 그런 것처럼 어렵듯이 알고만 공제회의 제도나 혜택들에 대해서 「언제나 The-K」 코너를 통해서 상세히 알려주시니 이를 통해 「아, 이 부분은 참고해서 가입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요즘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힐링을 어떤 점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에 행복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번 매거진도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행과 그 준비 과정에 초점을 둔 콘텐츠 지속적으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장*동 회원 장양초등학교

* 본문에 게재된 내용은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개된 30명 회원님을 포함해 선정되신 50분에게는 편의점 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설레는 마음으로 매달 1일을 기다려주시는 회원님들, 「The-K 매거진」도 설레는 마음으로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회원 의견 보내는 방법

1. 「The-K 매거진」 웹진 「회원 의견」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2.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메일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현재 혹은 퇴직하신 소속 기관명),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세요.

회원 의견 신청 바로가기 ▶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더욱 보답하기 위해 매월 50분을 선정해 편의점 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리고, 매거진에 소개해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성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님들을 위한 온라인 웹진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토끼 캐릭터



찾아 힌트를 얻고 퀴즈를 맞춰주세요!

◀ 이벤트 바로가기

「The-K 매거진」 웹진에 접속해 기사 속에 숨겨져 있는 토끼 캐릭터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토끼가 주는 힌트를 따라서 퀴즈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GS25편의점 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3. 5. 1. ~ 5. 31.
- 응모 방법 : 「The-K 매거진」 웹진(PC·모바일)에 접속해 숨겨진 토끼를 찾아 클릭 ▶ 토끼가 출제하는 퀴즈 풀기 ▶ 퀴즈 정답을 맞추고 이벤트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7. 1. 이후

지금쯤 댓글 남길 시간! 영상 리뷰 댓글왕 이벤트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달의 영상에 응모하시는 분의 댓글과 구글폼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GS25 편의점 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3. 5. 1. ~ 5. 15.
- 응모 방법 : ①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② 「The-K 매거진」 5월호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이나, 'DIY 리사이클링' 영상에 댓글을 다신 후
③ 본문 글의 구글폼 양식에 응모하시는 분의 정보까지 입력해 주셔야 응모가 완료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7. 1. 이후

「좋은 사람 좋은 생각」



「DIY 리사이클링」



누군가의 마음속에 평생을 사는 것, 또 한평생 종이접기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 김영만 원장은 이 모든 것이 '사랑' 덕분이라고 말한다.

* 댓글왕 이벤트는 응모 댓글을 남겨주신 후 응모단계에서 구글폼에 접속해 정보까지 별도로 입력해야 경품이 발송됩니다. 구글폼 링크는 '영상 제목'을 클릭하면 보이는 본문 글 내용 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이벤트의 당첨자 명단은 「The-K 매거진」 웹진 하단의 이벤트 당첨자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K 매거진」 5월 즉석 당첨 이벤트

5월, 꿈을 향해 날개 펴는 모든 분들에게 「The-K 매거진」이 힘을 실어드립니다

맑은 하늘과 풍성한 자연 속에서 맞는 5월에는 어느 때보다 희망찬 기분이 듭니다.

어린이와 온가족이 함께 행복해지도록 꿈을 위해 노력하는 발걸음을

「The-K 매거진」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응모 기간 : 2023. 5. 1. ~ 5. 31.



1,000개



이디야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GS25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000개

- 참가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방법** 경품 옆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즉석 당첨 이벤트' 클릭
▶ 원하는 경품 선택 ▶ 참여 및 당첨 여부 확인 ▶ 당첨 확인 후 인적사항 기재
- 당첨 발표** 응모와 동시에 확인 가능
- 경품 발송** 2023. 7. 1. 이후 (회원이 아닌 경우, 당첨되어도 경품 발송을 하지 않음)
- 유의 사항**
 - 당첨은 경품별 매월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야 하며,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발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음
 - 당첨 시 입력하는 성명과 연락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정보와 동일해야만 경품이 발송됨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참여 시 당첨이 취소되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이벤트 관련 문의 : 하나로애드컴 (Tel.02-3443-8005 / 월~금 09:00~18:00)

